

가출청소년의 비행 예방과 보호 대책 연구

가출청소년의 비행 예방과 보호 대책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생활안전대책연구실

연구관 유지웅

<제목 차례>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제2절 연구방법과 연구내용	3
제2장 가출청소년에 대한 이론적 논의	5
제1절 가출청소년의 개념	5
제2절 가출의 유형	7
제3절 가출의 원인	10
제4절 가출청소년의 특성에 관한 조사결과	13
제3장 청소년 가출 실태	18
제1절 가출청소년 발생 실태	18
제2절 가출동기	26
제3절 가출과 생계수단	30
제4절 최근 청소년 가출의 경향	34
제4장 청소년 가출과 비행 및 범죄의 관계	36
제1절 가출과 비행의 관계에 관한 선행 연구 결과	36
제2절 가출과 비행의 관계	41
제3절 가출과 범죄피해	53
제5장 가출청소년 비행 예방을 위한 정부의 대책	58
제1절 청소년쉼터	58
제2절 가출 청소년 보호를 위한 경찰의 활동	63

제6장 가출청소년의 보호와 비행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66
제1절 청소년 쉼터 운영 관리의 개선방안	66
제2절 가출 청소년 관련 법 제도 개선	70
제3절 가출청소년 보호를 위한 경찰의 제도 개선	72
제7장 요약 및 결론	76
<참고문헌>	83

<표 차례>

<표1> 가출청소년 발생 현황	19
<표2>연도별 성별 가출청소년(9-19세) 발생 추세	21
<표3> 연령별 가출청소년 발생건수와 구성비율	24
<표4> 가출동기	26
<표5> 가출이유 1순위	28
<표6> 가출이유 2순위	28
<표7> 일반청소년과 가출청소년의 유해환경 접촉실태 비교	43
<표8> 일반학생과 가출청소년의 성인매체 이용경험 비교	45
<표9> 일반학생과 가출청소년의 흡입제 이용경험 비교	45
<표10>가출 전후 문제행동 경험 조사	49
<표11> 청소년 쉼터 현황	61
<표12>청소년 쉼터 종류별 성격>	62
<그림1> 가출청소년 인구비	20
<그림2>연도별 남녀 가출청소년 발생 추이	22
<그림3> 연도별 연령별 가출발생비율 비교	25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청소년들이 가정을 떠나고 있다.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나 밖으로 떠나 보고 싶다는 생각은 그 시기의 청소년들이 한번쯤 가질 수 있는 생각이지만, 심각하게 가출을 고민하고 실제로 가정을 떠나는 청소년들이 해마다 늘어가고 있다. 최근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펴낸 청소년유해환경접촉 실태조사에서는 일반 학생들 가운데 가출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번이라도 해 본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서 절반 이상이 가출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10.9%는 실제 가출을 해 본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가출하는 일은 이제 드물지 않은 일이 되었다.

청소년들이 가출을 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가정의 보호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역기능적인 가정의 경우, 가정이 더 이상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보호를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기도 하지만, 대다수의 청소년에게 있어서 가정은 보호를 기대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공간임에 틀림없다. 청소년들이 가출을 한다는 것은 동시에 학교를 떠나는 것이기도 하다. 그것은 정규교육을 받을 기회를 일정 정도 상실하는 것이며, 학교에서 형성한 교우관계를 잃는 것일 수도 있다. 청소년이 가출을 한다는 것은 전혀 새로운 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인데, 그것은 스스로 생계를 꾸려나가야 하며, 스스로 잘 곳과 쉴 곳을 찾아야 하며, 위험한 외부 환경에 맞서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광야에 나서는 것과 같다. 문제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가정의 보호를 벗어난 청소년들이 비행과 범죄에 노출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청소년의 가출은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청소년 가출 문제의 심각성은 청소년 가출이 비행과 범죄 및 범죄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을 요구한다.

가출청소년에 관한 연구에서 지속되어 온 오래된 시각은 가출청소년을 비행청소년과 동일시하여 가출행위를 규범적으로 판단하고 접근하는 시각이다. 이러한 시각에서는 가출 현상이 비행의 소양을 가진 청소년 개인의 특성과 결합에서 빚어지는 것이라고 본다. 가출청소년은 본래적으로 비행을 일으키는 일정한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러한 소양이 가출 후에는 비행과 범죄로 이어진다고 본다. 비교적 최근에 이뤄진 국내외의 많은 연구결과들은 이러한 시각에 반론을 제기한다.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가출청소년들이 비행의 소양을 가진 문제아들이기보다는, 가정폭력과 가정해체의 피해자들과는 관점을 제시한다. 가출청소년들이 비행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은 본래적으로 이들이 비행의 소양을 가진 비행청소년이기 때문이 아니라, 가출 이후에 경험한 부정적 사회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후자의 관점에서 볼 때, 가출청소년을 비행청소년으로 동일시하여 규범적으로 접근하는 시각은 가출청소년의 비행예방을 위한 대책을 제시하는 데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왜냐하면, 전통적 시각에서 가출의 원인은 개인적인 데 있으며, 그들의 개인적 특성에서 비행이 저질지고 있다고 보기 쉽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가출청소년의 비행예방을 위한 대책은 비행의 원인을 제공하는 가출청소년을 가정으로 조속히 귀가시키는 것 외에 달리 방안이 도출되기 어렵다. 그러나 후자의 시각, 즉 가출청소년이 가정폭력과 가정해체의 피해자이며, 이들을 비행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가출 이후에 이들이 경험한 유해한 사회 환경이라는 시각에 입각할 때에는, 사회적 환경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 그것은 청소년들이 비행에 빠지게 하는 유해환경의 부정적 영향에 주목할 수 있게 하며, 범죄의 유혹에 쉽게 빠지게 하는 구조적으로 열악한 취업환경에 주목할 수 있게 하며, 청소년들을 성범죄로 유인하는 광범위한 성 산업의 영향 등에 대해서 주목할 수 있게 한다. 이 연구는 바로 후자의 시각에서 가출청소년들이 비행에 노출되는 것을 막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책들이 필요한지를 논의한다.

이 논문은 가출 청소년이 비행과 범죄 피해에 노출되어 있는 실태를 밝히고, 가출청소년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비행과 범죄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책들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절 연구방법과 연구내용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가출 경험과 비행의 관계, 가출과 범죄 피해의 관계를 살피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실시된 주목할 만한 가출청소년 관련 연구조사결과들을 문헌 조사 방식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문헌조사 내용으로는 국가청소년위원회와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등에서의 각종 조사 자료를 비롯하여, 관련 연구기관에서의 조사자료, 가출청소년 연구자들의 연구논문, 관련 신문기사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한편에서는 연구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 가출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면접조사가 병행될 필요성이 따르지만, 제한된 연구 자원의 한계에서 전체적으로 문헌조사방식에 의존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의 주된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의 가출 경험은 비행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청소년의 가출경험은 유해환경 접촉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청소년의 가출 경험은 범죄피해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2. 가출 청소년들이 비행과 범죄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책이 모색될 수 있는가? 특별히 경찰의 입장에서 필요한 대책과 제도 개선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러한 연구내용에서 이 논문의 제2장에서 먼저 가출청소년의 개념과

가출의 유형, 가출 동기에 관한 이론적 논의들을 살피고, 제3장에서는 청소년 가출의 증감추세와 성별 연령별 가출 추세를 분석하며, 제4장에서는 청소년 가출이 유해환경에의 접촉을 확대하고, 비행과 범죄에 노출되는 실태를 여러 조사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검토하며, 제5장에서는 가출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대책들을 쉼터 지원과 경찰의 유해환경 단속활동을 중심으로 살피고, 제6장에서는 가출청소년이 비행과 범죄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청소년 쉼터의 제도개선 방안과 법과 제도 개선 방안, 가출청소년 보호를 위한 경찰차원에서의 대책과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제2장 가출청소년에 대한 이론적 논의

제1절 가출청소년의 개념

가출청소년이란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먼저 가출에 대한 개념 정의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가출의 개념은 국가, 사회, 학자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정의되어 왔다. 가출의 개념 정의는 시기별로 일정한 변화를 나타내는데, 1970년대에 이뤄진 가출의 개념 정의는 일탈 혹은 비행과의 관련 속에서 정의되어 왔다. 즉, 이때의 가출에 대한 개념정의에서는 가출을 병리학적 관점에서 보는 것이 특징이었고, 만성가출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었으며, 가출청소년의 비행화에 초점을 두었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가출의 개념 정의가 좀 더 광범위하게 이뤄지는데, 이소희·주정일(1982)은 ‘가정의 냉담한 분위기와 불안정한 생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정신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부모의 승낙 없이 환경으로부터 벗어나는 행위’라고 정의하였으며, 나철(1992)은 청소년들의 가출이란 ‘단순히 집을 떠나는 행위의 역동성만 내재해 있는 것이 아니고 집에서 밀어내는 역동과 청소년 문화권에서 끌어당기는 힘의 세 가지 역동들의 합작품이다’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개념정의의 특징은 가출현상을 개인, 가정, 사회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가출의 개념은 개인적 문제에 근거한 일탈과 비행과의 관련에서 정의되던 경향에서부터 주변 환경적 문제에 직면하여 이에 대한 대안을 찾고자 의도적으로 가정에서 나오거나 가정에서 떠밀려 나온 행위로 이해하는 시각의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외국에서의 정의를 살펴보면, Garbarino는 가출청소년을 “부모의 허락 없이 집을 나간 청소년으로 적어도 하루 밤 이상 부모의 인식이나 통제

로부터 벗어나고자 행동을 한 청소년”(1986:42)이라고 정의하였고, Roberts는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집을 떠나서 24시간 이상 집에 들어가지 않은 18세 미만의 청소년”(나동석·이용교 역, 1991:37)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러한 개념정의에는 ‘부모의 허락이 없었다는 점’과 ‘가출시간이 24시간 이상이라는 점’이 공통적인 요소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의 사회사업백과사전에서는 미국의 보건복지성의 정의에 따라 가출청소년을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적어도 하룻밤 이상 집을 나간 청소년’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가출은 부모나 보호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24시간 이상 집밖에서 지내는 것으로 정의되곤 하는데(김향초, 1998), 이러한 정의들은 보호자로부터 일탈하는 것 자체가 규범적으로 문제시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의 연구경향은 가출 행위 자체를 규범적으로 문제시하는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비판적이다. 청소년이 가출하는 원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온 연구자들은 상당히 많은 가출이 가정폭력,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심각한 갈등, 빈곤 등 가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밝혀내었다(서울YMCA 청소년쉼터, 1997;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2002).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청소년의 가출 행위를 단지 ‘문제를 일으키는 행위’로 바라보고 비행과 동일시하는 시각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가출이 청소년 개인의 도덕적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일탈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위기에 처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채택하는 대처행위일 수 있기 때문이다(김지혜, 2005a:6).

이 연구에서는 가출청소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바에 따라, “부모와 보호자의 허락을 받지 최소한 24시간 이상 집밖에서 지내는 청소년”(김향초, 1998)으로 규정하고 논의할 것이나, 가출청소년의 발생 원인과 관련한 최근의 연구 성과를 반영하여 가출청소년이 가정폭력과 가정해체의 피해자라는 관점에서 가출청소년들이 가정 밖에서 비행에 연계되는 것을 막기 위한 사회적 차원에서의 대책을 모색할 것이다.

제2절 가출의 유형

가출은 그 원인과 과정, 결과의 측면에서 다양한 형태로 구분될 수 있다. 다양한 기준에 따라 가출유형을 분류하는 것은 가출의 원인을 파악하고 가출현상에 대한 적절한 해법을 제시하는 데 유용하다. 이 절에서는 가출의 원인과 결과를 중심으로 가출의 유형을 분류한다.

1. 가출동기에 의한 분류

가출유형을 분류하는 하나의 방법은 가출의 원인에 따라서 가출유형을 분류하는 것이다. Homer(1973:474-475)는 치료시설에 입소한 가출청소년 20명을 면접한 후, 가출 유형을 ‘탈출형’과 ‘추구형’으로 구분하였다. Homer가 구분한 탈출형 가출은 가정적인 문제나 대인적 갈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가출을 하는 것을 말하며, 추구형 가출은 가정에서 금지된 성관계, 약물, 술, 기타 비행 등으로부터의 즐거움을 추구할 목적으로 가출하는 것을 말한다. 김성경(1997:31)은 Homer의 이러한 분류에 추방형을 추가하여, 탈출형, 추구형, 추방형으로 구분하기도 했다.

Barth(1986)는 청소년이 가정으로부터 탈출하는 원인을 세 가지로 분류하였는데, 금전문제 또는 사망, 이혼과 같은 가족구조의 변화가 야기하는 가정내의 긴장으로부터 탈출하는 유형, 부모의 기대나 통제가 과다하여 이로부터 탈출하는 유형, 부모의 신체적, 성적 학대를 피하고자 탈출하는 유형 등을 제시하고 있다.

Miller(1980:34-36)는 가출의 원인이 부모에게 있는 경우와 청소년에게 있는 경우를 구분하고 그 원인이 부모에게 있는 경우의 가출유형을

희생자(victims), 추방자(exiles), 반항자(rebels)로 나누고, 청소년에게 그 원인이 있는 경우의 가출유형을 도망자(fugitives), 피난자(refugees), 이민자(immigrants)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희생자 유형은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경험이 있어서 귀가를 두려워하고 귀가하기를 거부하는 유형이고, 추방자 유형은 부모로부터 쫓겨난 유형이며, 반항자 유형은 부모와의 심각한 갈등으로 인해 가출한 유형이다. 한편, 도망자 유형은 자신이 한 문제행동에 대한 처벌이 두려워 가출한 유형이고, 피난자 유형은 가족이 없으며 위탁가정이나 시설에서 도망 나온 유형이며, 이민자 유형은 가정이나 학교에서 벗어나 자유와 모험을 찾는 유형이다.

Springer(2001)는 ‘가정에서의 갈등과 학대를 피해 가출한 유형’을 ‘Huckleberry Finn형’이라고 부르는 한편, ‘스릴을 추구하여 가출한 유형’을 ‘Tom Sawyer형’이라고 구분하였다. Huckleberry Finn형 가출은 첨예한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들이 불안, 흥분, 폭발적 성격, 우울, 무력감, 극도의 피로감 등을 경험하면서 위기를 피하는 경우인데, 이 유형에서 가출은 개인의 병리적인 잘못이기보다는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책으로 볼 수 있다.

Kaufman과 Widom(1999)은 ‘무엇을 찾는 가출’과 ‘무엇을 피하는 가출’로 구분한다. ‘무엇을 찾는 가출’은 자유와 쾌락을 쫓아 가출하는 형태이며, ‘무엇을 피하는 가출’은 가정폭력, 부모와 학교의 통제를 피해 가출하는 경우이다.

가출을 분류하는 또 다른 방식은 청소년이 가출을 선택하는 Runaway형 가출과 청소년이 집에서 쫓겨나는 Throwaway형 가출로 나누기도 한다. Runaway형 가출은 대개 가족 갈등이나 가족간의 관계 미숙 때문에 가출하는 경우이고, Throwaway형 가출은 부모나 보호자에 의해 버려지거나 거부되는 경우이다.

2. 가출양상에 따른 분류

가출 유형은 가출기간이나 반복성 여부, 가출집단의 규모, 소외감의 정도, 귀가 형태 등 가출양상을 중심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English(1973:22-24)는 가출기간을 중심으로 ‘가출 후 48시간 이내에 복귀하는 유형’, ‘관심을 끌거나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반복하여 가출하는 유형’, ‘완전히 집을 떠나 거리에서 생활하는 유형’ 등으로 분류하였다.

Brennen(1975)은 귀가형태를 중심으로 가출유형을 분류하였는데, 첫 번째 유형은 계획 없이 짧은 기간 가출하는 충동적인 유형으로서 스스로 귀가하는 특징을 보인다. 두 번째 유형은 사전 준비를 하여 가출한 유형으로서 가출기간이 길고 스스로 귀가하지 않는다. 세 번째 유형은 일시적인 쾌락을 추구하여 가출한 유형으로서 일주일내에 귀가한다. 네 번째 유형은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벗어나려고 집을 영원히 떠나는 유형이다. 마지막 유형은 편치 않은 가정사를 잠시 잊기 위해 며칠 동안만 가출하는 유형이다.

한편 UNICEF는 가출 후 생활하는 형태에 따라 ‘On the street’, ‘Of the street’, ‘In the street’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On the street’ 유형은 낮에는 일하거나 놀고 밤에는 집으로 돌아가는 유형이고, ‘Of the street’ 유형은 거리에서 일하고 살아가지만 가족과의 연계는 되고 있는 유형이며, ‘In the street’ 유형은 가족이나 지역사회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버려지는 유형이다(김현수, 2003).

국내 연구에서 가출청소년에 대한 유형 분류의 예를 보면, 이용교(1991)는 Homer의 탈출형과 추구형을 기본으로 하되, 유흥업소에의 취업 여부를 추가적인 기준으로 삼아서 단순가출, 만성가출, 단순탈출, 만성탈출 등의 네 가지 가출유형을 제시하였다. 단순가출과 만성가출은 Homer의 추구형이며, 단순탈출과 만성탈출은 Homer의 탈출형인데, 유흥업소에 취업할 경우에는 ‘만성’으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단순’으로 분류하였다. 김준호·박정선(1993)의 연구에서는 가출의 동기에 따라서 시위성, 도피성, 추출형 가출로, 가출의 준비 여부에 따라 충동적, 계획적 가출로, 가출 횟수에 따라 일과성, 반복성 가출로 구분하였다. 또한 홍봉선과 남미애(2000)는 시위성, 유희성, 방랑성, 추방형, 생존형 등으로 분류하였다.

제3절 가출의 원인

가출의 발생은 방출요인과 유인요인, 촉발요인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일어난다. 방출요인은 청소년을 가정 밖으로 몰아내는 요인이고, 유인요인은 청소년을 가정 밖으로 끌어내는 요인이며, 촉발요인은 실제로 가출을 유발시키는 요인이다.

1. 방출요인

방출요인은 청소년을 가정 밖으로 몰아내는 요인이다. 부모와의 불화나 부모들의 별거나 이혼 등의 가정문제는 대표적인 방출요인이 되는데, 이러한 가정내의 문제들이 청소년들로 하여금 가출하도록 밀어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가정적 요인은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와 기능적 결함이 있는 경우로 나뉘 볼 수 있다. 구조적 결함이 있다는 것은 사별, 이혼, 별거 등의 사유로 부모의 한쪽이나 양쪽이 없는 경우를 가리키는데, 이러한 때 청소년들은 애정의 결핍과 함께 소외감을 느끼고 가출로 이어지기 쉽다. 기능적 결함이란 정상적인 가정에서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기능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부부간에 애정이 없거나 형제간에 우애가 없거나 부모 자식간에 사랑이 없는 경우, 겉으로는 결함이 없어 보이는 가정이라도 사실상 기능상의 결함을 갖고 있는

것이다. 한편, 어떠한 가정은 부모의 알콜 중독, 도박, 질병 등으로 가정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기능적 해체가 있으며, 이러한 요인이 가출에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런가하면, 부모의 지나친 관심이나 방임적인 무관심이 가출을 불러올 수도 있으며, 부모와 자녀간의 생각의 차이와 사고방식의 차이로 인한 의사소통의 단절이 가출을 불러오기도 한다. 이처럼 부모의 양육 방법, 부모와 자식간의 의사소통의 형태 등이 가출의 요인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김준호·박정선, 1993).

청소년들로 하여금 가출로 밀어내는 방출요인은 학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입시위주의 교육풍토에서 낮은 학업성적으로 인한 스트레스, 학교 안에서 동급생들로부터의 따돌림과 소외감, 학교폭력의 피해 등은 청소년으로 하여금 가출에 이르도록 몰아가는 방출요인이 된다.

2. 유인요인

유인요인이란 청소년들을 가정 밖으로 유혹하는 사회 환경적 요인을 가리킨다. 최근 청소년들의 가출동기에는 이러한 유인요인들이 크게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 가출의 유인요인으로 작용하는 사회 환경은 합법적인 환경과 불법적인 환경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합법적인 환경은 청소년들이 즐겨 찾는 PC방, 노래방, 찜질방 등을 예로 들 수 있으며, 불법적인 환경은 가출청소년들을 성인문화에 참여시키거나 불법 탈법적인 방법으로 숙식을 해결해주는 환경을 가리키는데,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과 같이 성인들만 허용된 공간에 청소년들을 출입시킨다거나, 공장이나 가게, 유흥업소 등에서 숙식을 제공하면서 청소년을 고용하는 경우이다. 돈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들을 상대로 성의 상품화를 요구하는 사회 환경, 미성년자의 성을 사고 파는 음란한 성인문화, 가출소녀들을 대상으로 종업원을 모집하는 유흥업소들의 행태는 가출청소년들을 유인하는 요인이다.

3. 촉발요인

촉발요인이란 청소년들을 가정 밖으로 나오도록 촉발하는 요인이다. 이러한 요인으로는 가출청소년 개인의 정서적 행동적 특성과 또래집단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청소년기에 청소년들은 부모의 간섭을 싫어하고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발달과정상의 특성을 갖는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러한 생각들을 행동에 옮길 수 있는 길은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시기에 개인의 정서적 행동적 특성은 청소년 가출을 촉발하기 쉽다. 가출청소년의 정서적 행동적 특성에 관한 연구 결과를 보면, 가출청소년들은 상대적으로 자아개념과 자신감이 부족하고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며 방어적이라는 특징을 나타낸다. 또한 가출청소년은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강박적인 성격을 띠며 반사회적이거나 화를 잘 내는 정신장애 경향을 나타내기도 한다. 청소년기의 이러한 정서적 특성에서 우발적으로 가출을 선택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한편 청소년의 가출은 가정, 학교, 교우관계 등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이러한 위기 대처능력의 부족은 가출로 이어진다. 다른 한편에서는 또래집단의 영향을 받아서 가출을 감행하는 경우도 있다. 청소년기에는 부모나 교사보다 또래집단을 준거집단으로 삼기 쉬운데, 이러한 특성에서 다른 친구들이 가출하는 것을 따라서 가출하는 집단 가출, 이미 가출한 친구를 따라서 함께 가출하는 줄줄이 가출로 이어진다. 그런가하면, 청소년기의 특성에서 비롯된 이성애에 대한 관심에서 가출이 감행되기도 한다.

제4절 가출청소년의 특성에 관한 조사결과

1. 가출경향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집을 나가고 싶은 충동을 경험한다. 황순길·이은경·권혜수·박관성(2001)의 연구에서는 청소년 10명 중에서 7명 이상이 가출 충동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한 번이라도 가출 충동을 느낀 청소년이 10명 중 7-8명꼴이라고 밝힌 서울 YMCA 조사결과(1991)와도 거의 일치한다.

청소년들의 가출 경향에 관한 외국의 연구 결과에서는 가출청소년의 수는 증가하고, 가출 연령은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여자 청소년의 가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Roberts, 1987). 이러한 조사 결과는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의 청소년 가출 경향에 관한 연구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김준호·박정선(1993)의 연구에서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아동 수의 감소, 그리고 적은 수의 자녀에 대한 부모의 관심 증가로 가출 아동 수는 줄어들고 있으나, 가출청소년은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최윤진·구창모·정문성(1990)의 연구에서는 가출 청소년의 연령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는 조사결과를 내놓았다. 가출 청소년의 남녀 성비와 관련하여 이춘화·윤옥경(2003)은 여자 청소년의 가출이 남자 청소년의 가출보다 더욱 높다고 주장하였다.

2. 가정생활

가출청소년의 가정생활에 관한 기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가출청소년의 가정은 역기능적인 가정으로 특징지어진다.

가출청소년들의 가정에 관한 외국의 연구결과를 보면, 별거와 이혼을 한 경우가 많고 법을 위반하거나 알코올을 남용하는 경향이 자주 보고된

다. 가출청소년들은 그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가족들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다(Kurtz, Jarvis, and Kurtz, 1991). 또한 가출 청소년의 가정에서는 정서적, 성적, 신체적 학대가 일어났거나 일어나고 있는 경우가 많다(Tyler, Hoyt, and Whitbeck, 2000)¹⁾.

가출청소년의 가정에 관한 기존의 연구결과를 정리해 보면, 첫 번째 특징은 가족 구성원들에게서 높은 범죄성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들의 부모들은 법 위반을 하는 경향이 있어서 중범을 저질러 유죄판결을 받기도 하고, 알콜이나 마약 남용을 보이기도 하며,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폭력을 사용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 두 번째 특징은 가출청소년의 가정은 구조적으로 결손가정의 특징이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가출청소년의 가정에서는 부모가 별거 중이거나 이혼한 경우가 많이 나타난다. 세 번째 특징은 가출청소년과 그 부모 및 다른 가족과의 관계는 애착의 정도가 낮고 부적절한 훈육의 특징을 보인다는 것이다. 부모는 자녀를 원하지 않아 방임하는 경우가 많고, 자녀는 부모와의 대화가 부족하며,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 네 번째 특징은 가출청소년의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갈등이 높고, 폭력과 학대가 특징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연성진·민수홍, 2004:51-54).

이러한 특징들은 이론적으로 볼 때, 사회통제이론²⁾과 자기통제이론³⁾

1) 예컨대 쿠르츠 외(Kurtz, Jarvis, and Kurtz, 1991)의 연구에서는 가출 쉼터에서 도움을 받은 청소년 3,519명을 조사한 결과, 홈리스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또래들보다 부모의 방임을 경험하는 경향이 있었고, 그들의 삶에서 부모의 모습을 찾기 어려운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그들의 부모는 자녀를 원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조사대상 청소년들 가운데 부모와 정서적인 갈등이 있는 경우가 62%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부모와의 대화가 부족한 경우가 59% 정도였다. 조사대상 청소년들 중에서 가정폭력을 경험한 경우는 20% 정도 되었다.

2) 사회통제이론은 고전주의적 인간관을 받아들여 인간은 쾌락과 고통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행동을 선택하는 합리적 존재로 가정하며, 범죄와 비행은 모두 인간이 갖는 욕구를 쉽고 즉각적으로 충족시키는 경향이 있어서 인간은 누구든지 범죄나 비행을 저지를 동기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손쉽게 즉각적으로 욕구를 충족시키는 범죄나 비행을 저지르지 않는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허쉬(Hirschi, 1969)사회통제이론은 주변의 중요한 타자들과 형성하는 유대 등의 사회적 통제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한다. 허쉬의 이론은 “비행은 사회에 대한 개인의 유대가 약하거나 깨졌을 때 일어난다”는 일반명제로부터 출발한다. 사회통제를 구성하는 데 중요한 요인들은 애착(attachment), 관여(commitment),

의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다. 자기 통제력이 낮은 부모가 자녀를 적절히 훈육하지 못하고, 배우자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사용하고 빈번해지는 결과 부모와 자녀 사이의 애착이 낮아져서 부모는 자녀들을 비행의 유혹으로부터 지켜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자기통제이론과 사회통제이론의 관점에서 본다면, 부모의 낮은 자기통제력 때문에 가정 안에서 학대가 일어나고, 그 결과로 가출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다.

3. 학교생활

가출청소년들의 학교생활에 관한 외국의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가출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대결하는 경향이 있고, 학업에 실패하는 경향이 있으며, 무단결석이 잦고, 또래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경향이 발견된다. 가출청소년들의 학교생활의 특징을 설명하는 시각도 사회통제이론과 자기통제이론에 기반하여 설명될 수 있다. 교사나 또래 집단들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 자기통제이론의 시각에서 설명될 수 있다. 자기통제력이 낮은 가출청소년들은 자기중심적인 태도와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어서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불편과 고통에

참여(involvement), 신념(belief)이다. 부모, 학교, 선생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이 요인들이 강할수록, 개인의 행동은 순응하도록 통제되어진다. 반대로 이 요인들의 작용이 약할수록, 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커진다.

- 3) 자기통제이론은 사회통제이론을 주장하던 허쉬는 그의 제자인 갓프레드슨(Gottfredson)이 제안한 이론이다. 이들은 범죄를 삼가는 경향에서의 개인적인 차이를 설명하는 자기통제이론을 제시했다. 갓프레드슨과 허쉬는 자기통제력이 낮은 사람은 (1) 욕구를 즉각 충족시키는 경향이 있고, (2) 복잡한 일보다 단순한 일을 선호하며, (3) 위험한 행동을 줄이고, (4) 말보다 행동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5) 자기 중심성이 강하여 다른 사람이 겪는 고통에 둔감하고, (6) 성미가 급한 경향이 있다. 반대로 자기통제력이 강한 사람은 욕구충족을 지연하고, 장기적인 손실을 중시하며, 분별력이 있으며, 조심성이 있고, 행동보다는 말로 자신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이 겪는 고통과 이해에 민감한 경향이 있다. 자기통제이론에 따르면, 자기 통제력이 높은 사람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낮은 데 비하여 자기통제력이 낮은 사람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둔감하게 되고 그 결과로 ‘중요한 타자’와의 장기적인 관계에서 어려움을 야기하기 쉽다. 학업의 실패도 자기통제이론의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다. 자기통제력이 낮은 사람은 장기적으로 손해가 되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욕구를 즉각 충족시키는 경향이 있고, 이러한 성향은 장기적인 이익을 주는 학업보다 당장 즐거움의 보상이 주어지는 노는 일에 탐닉하게 하여 학업의 실패를 가져오기 쉽다. 사회통제이론의 관점에서 본다면, 가출청소년들은 진학과 취업이라는 통상적인 목표에 대한 관여(commitment)의 정도가 낮기 때문에 비행과 범죄를 저지른다는 설명도 가능하다(연성진·민수홍, 2004:55).

4. 개인생활

가출청소년의 개인생활에 관한 외국의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가출청소년들은 우울증의 경향이 있으며, 부정적인 자아개념과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가출청소년들은 일반 또래 학생들에 비교해서 자살의 위험성이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다.⁴⁾

가출청소년들은 합법적인 수단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청소년들이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서 매춘과 마약 거래 등의 범죄행위의 유혹을 받고 있는데, 매춘에 종사하는 가출청소년들은 마약남용, 자살, 우울증 등의 위험이 더욱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되고 있다(연성진·민수홍, 2004:56). 그런가하면 알콜 사용도 가출청소년에게 매우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된다.⁵⁾

연성진·민수홍(2004)은 가출청소년의 개인생활에 관한 외국의 연구

4) 로스람 부르스(Rotheram-Borus, 1993)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연구대상인 214명의 청소년 가운데 37%가 과거에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었다. 자살을 촉진시키는 사건으로는 가정불화(22%), 다툼(16%), 수치를 당한 경험(10%)이 일반적이었다.

5) 케네디(Kennedy, 1991)는 가출청소년 가운데 81%가 알코올을 사용했고, 42%는 환각제와 코케인을 사용했으며, 72%는 마리화나를 사용한 경험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결과들을 정리하면서, 가출청소년들이 내면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그 결과로 많은 부정적인 사건들을 경험한다고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가출청소년은 자존감이 낮고, 우울증이 나타나서 자살의 위험도가 더욱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가출청소년의 개인생활에서의 특징은 낮은 자기통제력의 결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생활의 특징들이 그들의 내면적인 문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낮은 자기통제력의 결과라고 볼 만한 근거는 없다. 그들에게서 자존감이 낮고, 우울증이 나타나며, 자살의 빈도가 높은 내면적 문제를 안고 있지만, 그것이 낮은 자기통제력의 결과로서 빚어진 것이 아니라, 가출청소년의 가정생활에서 언급된 결손가정적 특징, 곧 부모 자식간의 낮은 애착과 부적절한 훈육, 부모간의 갈등과 폭력 등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 가출청소년들이 알콜과 약물에 의존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가출청소년에게서 알콜과 약물중독 경향이 나타나는 것은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일 뿐이며, 그것이 그들의 개인적 특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가출청소년들이 알콜과 약물에 의존하는 데에도 역시 가정생활의 특징들이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을 수 있다.

제3장 청소년 가출 실태

제1절 가출청소년 발생 실태

가출청소년의 규모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가출청소년 통계는 경찰청에서 산출하고 있지만, 이 통계자료는 가출 신고 접수된 청소년들의 숫자를 보여줄 뿐이다. 가출청소년의 발생 특성으로 볼 때, 가출청소년의 발생이 신고가 되기보다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경찰청의 가출청소년 통계자료는 일정한 한계를 안고 있다. 그러나 이 통계자료는 비록 가출청소년의 규모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경찰에 신고된 가출청소년 규모의 변화를 통해서 가출청소년 발생 추세를 파악하는 데에는 유용한 자료이다. <표1>는 1985년부터 2005년까지의 9세부터 19세까지의 가출청소년 발생수와 인구비를 조사한 것이다.⁶⁾ 이 표를 통해 살펴보면, 1985년도에는 만명에 미치지 못했던 가출청소년 발생수는 10년 후인 1996년에는 2만명에 육박한다. 10년 사이에 가출청소년의 숫자는 거의 2배가 늘어난 셈이다. IMF 구제금융지원이 시작된 1997년 최고조에 이르렀던 가출청소년 숫자는 이후 증감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가출청소년의 증감추세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가출인수만을 놓고 비교하는 것은 일정한 한계가 있다. 9세부터 19세까지의 인구수 자체에 일정한 변화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출청소년의 증감추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9세부터 19세까지 인구 만명당 가출인수를 산출하여 비교하는

6) 2006년 자료를 포함하지 않은 것은 2005년 12월 1일 실종아동법의 시행에 따라 가출청소년 통계는 14세부터 19세까지의 통계만을 산출하고 있어서 그 이전시기와 비교하기 곤란하기 때문이다. 이 통계자료에는 2005년 9-19세 가출인수를 13,294명으로 조사하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 통계수치는 2005년 12월 9세부터 13세까지의 가출인수를 포함하지 않은 숫자이다. 2005년 1월부터 11월까지 9세부터 19세까지 가출청소년의 숫자는 모두 12,836명이며, 2005년 12월에 14세부터 19세까지 가출청소년의 숫자는 458명이다(2007년 경찰청 국정감사 자료).

것이 필요하다. <그림1>은 1985년부터 2005년까지 9세부터 19세까지 가출청소년의 인구비 추세를 도표로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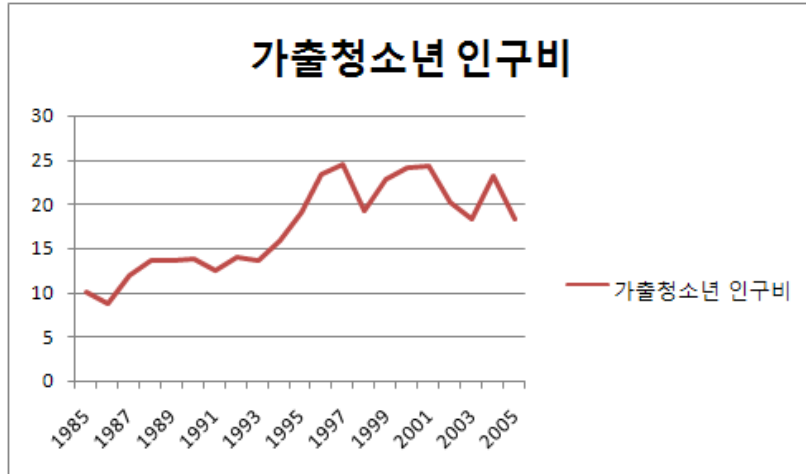
<표1> 가출청소년 발생 현황

연도	9-19세 추계인구	9-19세 가출인수	인구비
1985	9,700,360	9,714	10.01
1986	9,607,323	8,406	8.75
1987	9,513,043	11,386	11.97
1988	9,431,331	12,803	13.57
1989	9,353,422	12,816	13.70
1990	9,210,950	12,767	13.86
1991	9,103,725	11,414	12.54
1992	8,956,938	12,479	13.93
1993	8,763,887	11,933	13.62
1994	8,554,274	13,522	15.81
1995	8,359,757	16,013	19.15
1996	8,230,892	19,320	23.47
1997	8,089,863	19,835	24.52
1998	7,954,139	15,316	19.26
1999	7,805,869	17,894	22.92
2000	7,647,054	18,442	24.12
2001	7,484,578	18,276	24.42
2002	7,358,009	14,865	20.20
2003	7,287,454	13,374	18.35
2004	7,269,399	16,894	23.24
2005	7,285,296	13,294	18.25

자료: 통계청 연도별 추계인구 자료, 청소년 백서(1991-2006) 자료 재구성

주1) 인구비는 9-19세 추계인구 만명당 가출인 수입.

〈그림1〉 가출청소년 인구비



주1) 가출청소년 인구비는 9-19세 추계인구 만명당 가출인 수입.

이 도표를 통해 보면, 1985년부터 1997년까지 가출청소년의 인구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특별히 1994년부터 1997년 사이 가출청소년 규모의 상승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1985년 당시 인구 만 명당 10명 정도에 불과했던 가출청소년 숫자는 IMF 구제금융지원을 받았던 1997년에는 25명으로 늘어나 2.5배의 증가율을 보였다가 그 이후 2005년에 이르기까지 지그재그 형태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1985년부터 1997년까지는 가출청소년의 규모가 큰 폭의 증가를 보였던 시기로 볼 수 있는 반면, 1997년 이후 2005년 사이에는 크게 높아진 가출청소년의 규모가 크게 떨어지지도, 높아지지도 않으면서 일정한 간격으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통계수치는 전술한 바와 같이, 경찰에 신고된 통계자료에 기초하여 가출청소년의 발생추이를 보여줄 뿐이다. 실제 가출 청소년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006년 국가청소년위원회

(2006)가 전국의 중·고교생 14,4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번이라고 가출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57.1%가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10.9%는 실제 가출을 감행했다. 이러한 실제 가출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지난 2002년 국가청소년위원회 조사(2002)에서 조사대상자 가운데 실제 가출하였다는 응답은 8.5%였으며, 2005년 국가청소년위원회 조사(2005)에서는 9.9%였다. 즉, 지난 2002년 이후 조사대상 전국 중고등학생의 실제 가출 응답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행한 「청소년유해환경 종합실태조사」 결과에 기초해서 본다면, 지난 2002년 이후 가출 청소년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국가청소년위원회(2006)의 조사 결과대로 전국 중·고등학생의 10.9%가 실제로 가출을 감행하였다면, 가출청소년의 숫자는 경찰에 신고된 것에 기초하여 집계한 수치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청소년단체에서는 가출청소년의 규모를 10만 명 정도로 추산한다.

가출청소년은 성별로 차이를 보일까? 아래 <표2>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연도별 성별 가출청소년 발생 추세를 나타낸 것이며, 아래 <그림2>은 가출청소년 발생 수를 남녀별로 구분하여 도표화한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일관되게 여자 가출청소년의 숫자는 남자 가출청소년의 숫자를 상회한다. 2001년과 2006년 여자 가출청소년의 구성비는 63%에 이른다. 이 자료로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가출청소년을 성별로 구분하면, 여자 가출청소년이 남자 가출청소년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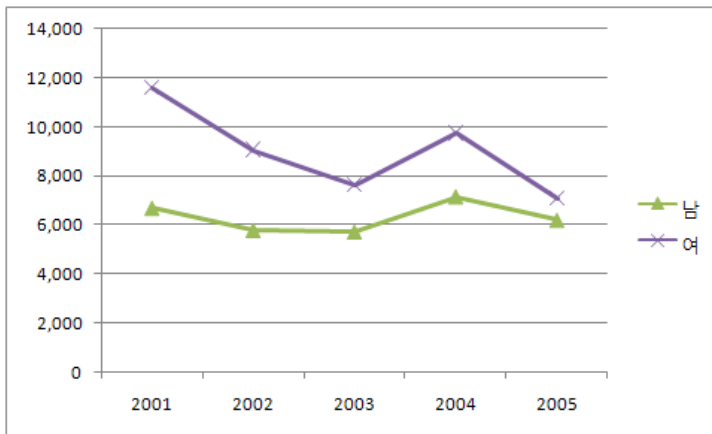
<표2>연도별 성별 가출청소년(9-19세) 발생 추세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남	6,689	5,796	5,722	7,153	6,195	3,406
여	11,587	9,069	7,652	9,741	7,099	5,984
계	18,276	14,865	13,375	16,894	13,294	9,390

자료: 2007년 청소년보호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 제출자료 재구성

주1) 2005년 12월 1일 실종아동법 시행에 따라 2005년 12월부터는 14-19세까지의 통계임.

<그림2>연도별 남녀 가출청소년 발생 추이



가출청소년 중에서 여자의 비율이 더욱 높다는 것은 가출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표집조사의 성별 분포에서도 확인된다. 김경준·김지혜·류명화·정익중(2006)의 연구에서는 전국 청소년 센터를 이용하고 있거나 청소년 센터에서 실시하는 거리 상담에 참여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임의 표집한 결과 지난 1년 동안 하루 이상 가출상태에 있었던 청소년 331명 가운데, 성별분포를 보면, 남자가 35.0%, 여자가 65.0%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가출청소년 가운데 여자 여자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다른 연구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김지혜(2005a)의 연구에서는 전국의 가출청소년센터, 아동상담소, 보호관찰소, 직업훈련기관 등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연구 분석에 포함된 청소년 285명 가운데 남자는 119명(41.8%), 여자는 166명(58.2%)

로 나타났다. 이렇게 가출청소년 중에서 남자청소년보다 여자청소년이 더 많이 표집되는 현상은 청소년 쉼터를 중심으로 표집한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2006) 조사와 거리에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표집한 서울 YMCA 청소년쉼터(2003) 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2006) 조사에 의하면, 조사에 응답한 청소년 414명 가운데, 남자는 170명(41.4%)이었고, 여자는 244명(58.9%)로 나타났다. 또 서울시내 중고등학교, 소년원, 분류심사원을 대상으로 대규모로 시행한 정기선·민수홍·이희길(2001)의 연구에서도 가출청소년 가운데 여자청소년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조사에서의 표집결과로 볼 때나 경찰청에서 집계한 가출청소년 통계로 볼 때에도 남자보다 여자청소년들이 더욱 많이 가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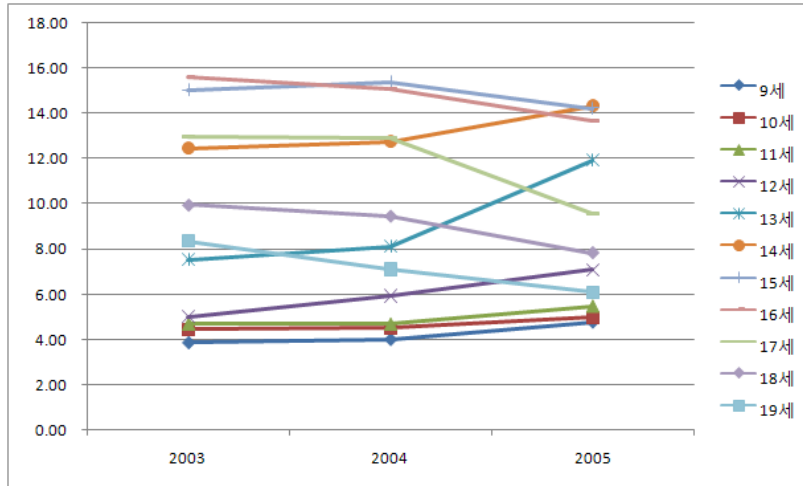
<표3> 연령별 가출청소년 발생건수와 구성비율

나이/연도	2003년		2004년		2005년 1-11월	
	발생수	비율	발생수	비율	발생수	비율
9세	519	3.88	680	4.03	614	4.78
10세	594	4.44	761	4.50	638	4.97
11세	628	4.70	792	4.69	703	5.48
12세	670	5.01	1,002	5.93	911	7.10
13세	1,008	7.54	1,368	8.10	1,529	11.91
14세	1,667	12.46	2,156	12.76	1,839	14.33
15세	2,012	15.04	2,602	15.40	1,826	14.23
16세	2,092	15.64	2,557	15.14	1,758	13.70
17세	1,732	12.95	2,174	12.87	1,230	9.58
18세	1,333	9.97	1,600	9.47	1,005	7.83
19세	1,119	8.37	1,202	7.11	783	6.10
계	13,374	100.00	16,894	100	12,836	100.00

자료: 2007년 경찰청 국정감사 제출자료 재구성

그렇다면 어떤 연령층에서 주로 가출이 이뤄지는 것일까? 위 <표3>은 지난 2003년부터 2005년 기간 동안 9세부터 19세까지 연령별 가출청소년 발생건수와 구성 비율을 조사한 것이다. 연령별로 볼 때, 13세부터 19세 연령대의 가출 발생건수가 상대적으로 높는데, 주목할 만한 사실은 2003년과 2004년에 가장 높은 가출발생건수를 보였던 연령층은 15~16세였지만, 2005년에는 14~15세로 낮아지고, 각 연령이 차지하는 비율에 있어서 15세 이상의 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지만, 15세 미만의 연령층의 구성비율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가출청소년의 연령층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아래 <그림3>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 동안 연령별로 가출 발생비율의 변화를 도표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3〉 연도별 연령별 가출발생비율 비교



이 도표를 통해 보면, 2003년에 가장 높은 가출발생 비율을 보였던 연령층은 15세와 16세였다. 그런데 이 두 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5년에 들어서 조금씩 낮아지는 추세를 나타낸다. 17세부터 18세가 가출발생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매해 낮아지고 있는 것이 뚜렷하다. 그런데 12세부터 14세가 가출발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매해 높아지고 있다. 특별히 주목되는 것은 13세와 14세의 상승세이다. 13세의 경우, 2004년에는 전체 가출발생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8% 정도였지만, 2005년에는 12% 정도로 높아진다. 이 도표는 불과 3년간의 비교이지만, 가출발생건수에서 1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갈수록 낮아지고, 15세 미만이 차지하는 비율은 갈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별히 12세부터 14세까지의 연령층에서 가출발생의 증가가 뚜렷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출 발생의 저연령화가 하나의 추세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제2절 가출동기

청소년이 가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2006) 조사에서는 쉼터 이용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출 이유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 가출동기

	1순위			2순위			2004 (중복응답)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부모간의 불화	163	150	155	67	36	48	
부모의 지나친 간섭	75	73	74	67	63	64	
부모의 무관심	25	69	51	33	49	43	
부모의 폭행	138	146	142	73	58	64	37.0*
부모와의 의견차이로 갈등	100	30	59	40	67	56	
부모의 알코올 중독	50	30	38	47	18	29	
형제간의 간섭 폭행	19	34	28	.7	.9	.8	
부모의 차별	13	30	23	27	31	29	
경제적 어려움	44	64	56	47	22	32	20.1
교사의 차별대우	.0	.4	.3	.7	.4	.5	
성적 학업의 부담감	13	.4	.8	33	18	24	
따돌림 소외감	.6	.9	.8	20	45	35	
학교폭력의 피해	31	.0	13	13	13	13	
학교생활에 흥미가 없어서	31	13	20	80	49	61	18.9
복학후 학교 부적응	.6	.0	.3	27	13	19	
선후배 관계의 어려움	31	.4	15	.0	.0	.0	
친구가 하자고 해서	13	26	20	27	31	29	
이성친구와 살고 싶은 욕구	.6	.9	.8	.7	.9	.8	14.9
이성친구와 놀다가 너무 늦어서	.6	1.7	1.3	.7	2.7	1.9	
새로운 경험을 쌓기 위해	.0	.0	.0	20	18	19	
혼자 살고 싶어서	.6	1.7	1.3	45	36	40	
돈 벌고 싶어서	19	.9	13	33	40	37	13.9
답답해서	81	124	107	93	116	107	27.2
평소 불안감을 느끼므로	.6	3.0	2.0	20	31	27	
충동적으로	13	21	18	33	40	37	
짜증나서	38	34	36	73	103	91	
비행	19	.0	.8	27	22	24	
기타	50	52	51	27	31	29	

출처: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2006), 『가출청소년 및 청소년쉼터 실태 조사』 자료 재구성.

<표5> 가출이유 1순위

		가족적 요인	학교적 요인	친구 및 이성친구요인	새로운 도전	심리적 요인	비행 요인	기타
성별	남자	62.5	11.9	2.5	2.5	13.8	1.9	5.0
	여자	62.7	3.4	5.2	2.6	21.0	.0	5.2
합계		62.6	6.9	4.1	2.5	18.1	.8	5.1

출처: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2006), 『가출청소년 및 청소년쉼터 실태 조사』 자료 재구성.

가출이유를 6가지 요인으로 대별하여 살펴보면 가출 이유 1순위로 가장 높게 나온 것은 가족적 요인(62.6%)이었고, 그 다음이 심리적 요인(18.1%), 학교 요인(6.9%), 친구 및 이성친구(4.1%)의 순이었다. 가출이유 1순위는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데 남자의 경우 학교적 요인, 비행요인이 상대적으로 높는데 비해서 여자의 경우에는 심리적 요인, 친구 및 이성친구 요인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6> 가출이유 2순위

		가족적 요인	학교적 요인	친구 및 이성친구요인	새로운 도전	심리적 요인	비행 요인	기타
성별	남자	40.7	18.0	4.0	10.0	22.0	2.7	2.7
	여자	35.3	14.3	6.7	9.4	29.0	2.2	3.1
합계		37.4	15.8	5.6	9.6	26.2	2.4	2.9

출처: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2006), 『가출청소년 및 청소년쉼터 실태 조사』 자료 재구성.

가출 이유 2순위에서 가장 높게 나온 것은 가족적 요인(37.4%)이었고, 그 다음이 심리적 요인(26.2%), 학교적 요인(15.8%), 새로운 도전(9.6%)의 순이었다. 가출 이유에 관한 이 조사결과로 볼 때, 청소년의 가출이유로서 가장 큰 요인은 바로 가족적 요인이며, 가족적 요인에 이은 두 번째 요인은 심리적 요인이다. 반면에 친구요인이나 비행요인 등은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다. 가족적 요인이 주된 요인이 되는 반면, 친구요인이나 비행요인은 상대적으로 그 영향이 적다는 조사결과는 청소년의 가출 이유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그것은 청소년의 가출이 개인적 특성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열악한 외부환경에 기인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가출 청소년들은 열악한 가정환경에 오랫동안 노출되어 있으면서 가족 안에 더 이상 머물지 못하게 하는 방출요인(push factor)이 작용함으로써 청소년 가출이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2002) 조사에 의하면, 가출 청소년의 가족 상황을 조사한 결과, 친부모가 생존해 있는 경우는 41.8%에 불과했으며, 한 쪽 부모만 생존해 있는 경우가 28.9%, 부모가 재혼한 경우가 20.3%, 친 부모가 사망한 경우가 9.0%로 나타났다. 곧 가출 청소년들은 해체된 가정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러한 가정 해체가 청소년 가출의 큰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⁷⁾

청소년의 가출은 여러 가지 동기에서 발생하는데, 그 가출동기를 살펴보면,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출한 경우도 있지만, 가정환경이 청소년들을 가출하도록 몰아가는 경우도 더욱 흔하다. 여러 조사 연구에 의하면, 가출청소년들은 부모님과 불화, 가정 안에서의 신체적·정서적·언어적 학대, 결손가정 문제 등의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가출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가출청소년은 불우한 가정의 희생

7) 가족적 요인에 있어서 가정 해체 외에 중요한 것은 가족간의 불화, 가족부적응 등과 같은 기능성 결손이다. 즉, 가족이 가족으로서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청소년들이 가출하게 된다는 것이다.

자라고 할 수 있으며, 청소년 가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있는 것이다.

한편, 가출청소년은 학교 부적응자이기도 하다. 한국쉼터협의회(2000) 조사에 의하면 과반수 이상의 가출청소년이 학교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고, 잦은 무단결석으로 10명 중 3명은 학교에서 근신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안심운동서울협의회(2002) 조사에 의하면, 위기청소년 응답자의 59.7%가 복학 의지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3절 가출과 생계수단

김경준 외(2006)의 연구에서는 가출청소년이 지난 1년 동안 돈을 주로 어떻게 얻었는지를 조사하였다. 이 조사에 의하면, 가출청소년 가운데 부모님(보호자)에게서 돈을 받은 적이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78.0%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친구나 아는 사람에게 빌리거나 얻은 적이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는 58.8%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그밖에 조사대상자의 55.2%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번 적이 있었으며, 51.6%는 이전에 모아둔 돈을 사용한 적이 있었고, 42.2%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돈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한편, 조사대상자의 26.1%는 다른 사람의 돈을 훔치거나 빼앗은 적이 있었고, 조사대상자의 21.7%는 구걸이나 앵벌이를 해서 얻은 적이 있었으며, 조사대상자의 5.9%는 원조교제나 성매매를 해서 얻은 적이 있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보면, 가출청소년들은 주로 부모나 보호자, 친구 등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돈을 얻거나 아르바이트를 하여서 돈을 얻는 등 합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얻은 적이 더욱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절도나 앵벌이, 성매매 등 비합법적인 수단으로 돈을 번 적이 있는 경우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가출청소년을 가출기간에 따라 단기 가출청소년과 장기가출청소년으로 구분하여 가출 후 돈을 얻는 방법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부모님이나 보호자에

게서 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는 단기 가출청소년 중에서 91.8%를 차지했지만, 장기 가출청소년 중에서는 69.7%로 나타났다. 장기 가출청소년들은 가출기간이 길어지면서 부모님이나 보호자로부터의 돈을 받는 경우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줄어든 비율은 사회복지시설에서 돈을 받는 비율과 구걸이나 앵벌이를 통해서 돈을 번 비율의 증가로 나타난다. 즉, 사회복지시설에서 돈을 받은 적이 있는 단기 가출청소년은 27.3%였지만, 장기 가출청소년은 51.3%로 높게 나타나며, 구걸이나 앵벌이를 해서 돈을 번 적이 있는 경우는 단기 가출청소년이 13.9% 정도였지만, 장기 가출청소년은 26.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 가출청소년의 경우 부모님이나 보호자로부터 돈을 얻기 보다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돈을 받거나 구걸이나 앵벌이를 해서 돈을 얻는 경우가 더욱 많다는 것이다.

김경준(2006)의 조사와는 달리, 연성진·민수홍의(2004)의 연구에서는 가출청소년들이 가출해 있는 기간 동안 생활에 필요한 돈을 마련한 경로한 가지를 답변하게 한 결과, 친구나 선배의 도움을 받은 경우가 2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번 경우가 23.4%, 가출 이전에 돈을 저금을 해 두었던 경우가 22.3%였다. 그런데 집에서 돈을 훔친 경우, 소매치기를 하거나 돈을 훔친 경우가 각각 10.9%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출청소년의 21.8%는 남의 돈을 훔쳐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가출청소년들의 가출이 비행과 범죄로 이어지기 쉽다는 것을 예상하게 한다.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2006) 조사에 의하면, 쉼터 이용 청소년이 가출기간 동안 사용한 용돈이나 생활비의 출처 1순위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이 21.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이전에 모아두었던 돈(20.8%), 친구나 아는 사람에게 빌린 돈(16.0%), 집에서 훔쳐온 돈(14.0%), 훔치거나 뺏은 돈(11.7%), 구걸이나 앵벌이(3.3%)의 순이었다. 가출기간 사용한 용돈의 출처 2순위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친구나 아는

사람에게 빌린 돈(26.8%), 훔치거나 뺏은 돈(14.9%), 이전에 모아 두었던 돈(14.3%), 아르바이트로 번 돈(13.4%), 구걸이나 앵벌이(12.5%)의 순이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로 볼 때, 가출기간 동안 필요한 용돈이나 생활비의 출처로서 훔치거나 구걸, 앵벌이 등 부적절한 방법 등이 1순위에서 29%, 2순위에서 38.4%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2004년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조사 결과(중복응답)와 크게 다르지 않다. 가출기간 동안 필요한 용돈이나 생활비를 얻는 출처로서 훔치거나 구걸, 앵벌이 등의 부적절한 방법이 사용되는 경우가 상당히 높다는 점은 가출기간이 길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비행이나 범죄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과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노동착취와 학대를 당할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가출청소년들 가운데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생활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는 경우에 어떤 아르바이트를 이용하고 있을까?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2006) 조사에 의하면, 가출청소년이 가출 기간 동안 한 아르바이트 업소 1순위는 음식점(36.1%)이었고, 그 다음은 주유소(26.7%), 당구장(11.4%), 슈퍼 편의점(11.4%), 피시방(10.9%), 다방 카페(2.0%) 순이었다. 아르바이트 장소는 성별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남자의 경우 주유소, 피시방, 다방 카페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데 반해, 여자의 경우에는 음식점, 슈퍼 편의점, 당구장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아르바이트 장소 2순위로서 가장 높게 나온 것은 피시방(28.5%)이었고, 그 다음이 음식점(20.8%), 슈퍼 편의점(18.3%), 주유소(12.5%), 당구장(6.7%), 만화방(5.0%), 호프집과 소주집(4.2%), 노래방(2.5%), 티켓다방(1.7%)의 순이었다. 2순위에서 티켓다방과 호프집, 소주집 등이 각각 1.7%와 4.2%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아르바이트 업소는 청소년 취업이 금지된 곳으로서, 성매매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업소이다. 2006년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조사결과를 지난 2004년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조사(윤현영·강진구, 2005)와 비교해 볼 때, 아르바

이트 장소는 전체적으로 유사하지만, 피시방에서의 취업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피시방은 향후 청소년의 새로운 아르바이트 장소로서 더욱 많이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

연성진·민수홍(2004:71)의 연구에 의하면, 가출 후 취직 여부를 묻은 결과, 응답자 중에서 63.3%는 취직을 한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응답자의 10.7%가 음식점에서 일했다고 응답했으며, 7.3%가 주유소에서 일했다고 응답했다. 그밖에도 소수가 술집이나 유흥업소, PC방이나 노래방, 목욕탕이나 찜질방 등에서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출청소년의 취업형태는 그들의 경제적 불안정성을 보여준다. 가출 청소년의 다수는 취직을 한 적이 없었으며, 취직을 한 경우에도 근로 환경이 열악한 직종에 아르바이트 형태로 취직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음식점이나 주유소는 제외하더라도, 청소년들이 일하기에 부적절한 술집이나 유흥업소, 다방, 사창가에 취직했던 경우도 약 7% 정도이고, 불법영업이 이뤄지기도 하는 노래방이나 이발소에서 취직했던 경우도 약 5% 정도이다. 가출청소년 10명 중에서 1명 정도는 청소년 유해업소에 취직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연성진·민수홍(2004:70)의 연구에 의하면, 조사대상 가출청소년들 가운데, 가출 후 숙박한 곳으로서 가장 많은 곳은 친구집(46.3%)이었다. 그 다음은 찜질방이나 사우나, 길거리나 빈집, 비디오방·만화방·PC방 순이었다. 가출한 청소년들이 친구집에서 가장 많이 잔다는 것은 가족을 벗어난 청소년들이 일차적으로 의지하는 대상은 가까운 친구들이며, 가출 이후의 사회적 관계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상대는 역시 그들의 친구들일 것이라는 예상을 가능하게 한다.

제4절 최근 청소년 가출의 경향

연성진·민수홍(2004)의 조사에서는 가출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출 후 귀가 여부를 묻은 결과, 조사 대상자의 86% 정도가 집으로 돌아갔다고 응답하였고, 14% 정도는 돌아가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지난 2000년 이후 공식적으로 신고된 가출청소년의 숫자가 매해 13,000~15,000명가량 된다고 볼 때, 매해 2,000명 정도로 귀가를 포기한 가출청소년들이 늘어나는 셈이다. 물론 이러한 수치는 신고된 가출청소년만을 놓고 계산한 것일 뿐으로, 신고되지 않은 가출청소년까지 합한다면 귀가를 포기한 가출청소년의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간 청소년들의 경우에도 다시 가출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가출 청소년들이 집으로 돌아가게 된 이유를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다. 집으로 돌아가게 된 이유를 보면, ‘가족이 그리워서’라는 응답과 ‘잘못을 인정하게 되어서’라는 응답이 각각 23% 정도를 차지했던 한편, ‘돈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17.5%, ‘가족이나 경찰에 붙잡혀서’라는 응답이 14%, ‘갈 곳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약 13%를 차지했다. 즉, 집으로 돌아간 가출 청소년의 절반 정도는 자발적으로 귀가한 반면, 절반 정도는 돈이 떨어졌거나 갈 곳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돌아갔거나, 붙잡혀서 돌아간 경우이다. 가출 후 귀가한 청소년들 가운데,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자발적으로 귀가하지 않은 가출청소년들은 다시 가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가출청소년의 전체 가출청소년 가운데, 40~45% 정도만이 가출을 후회하고 자발적으로 귀가하는 것이며, 다른 40~45% 정도는 비자발적으로 귀가하는 가출청소년들로서, 가출과 귀가를 반복하고 있는 집단으로 볼 수 있다. 가출 후 비자발적으로 귀가한 경우와 아예 집으로 돌아가지 않은 경우를 더한, 55~60% 정도의 가출 청소년은 가출 후 귀가를 원치 않지만 어쩔 수 없이 귀가하였거나 귀가를 포기한 경우로서 가출 청소년의 절반 이상이 가출예비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청소년들은 가출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다. 청소년보호위원회(2002)의 청소년 가출실태조사에 의하면, 일반청소년들조차 가출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즉 조사결과에 의하면, 10명의 학생 중에서 2-3명만이 어떠한 경우에도 가출은 안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 10명 중 5명은 불가피한 경우에는 가출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고, 10명 중 2-3명은 가출은 청소년기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오늘날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에서 10명 중 7-8명은 가출에 대해서 관대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출에 대한 관대한 태도가 청소년 가출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 가출에서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 충동적·일시적 가출은 만성적 가출로 고착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공부하는 시기에 있는 청소년들의 한 번의 가출은 학교에서의 부적응을 심화시키기 마련이다. 그래서 가출에서 돌아와 귀가하게 되더라도,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재가출하는 악순환을 불러온다. 또한 한 번의 가출은 여러 가지 일탈적 유해환경에 접촉할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도 만성적 가출로 이어지기 쉽다. 일탈적 유해환경은 가출청소년들을 범죄에 쉽게 노출됨으로써 가출을 장기화시키는 것이다.

제4장 청소년 가출과 비행 및 범죄의 관계

제1절 가출과 비행의 관계에 관한 선행 연구 결과

가출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을 동일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청소년의 가출이 비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가출청소년에 관한 지금까지의 제 조사결과는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절대적으로 많은 가출청소년이 심각한 수준의 비행을 한다. 지난 2001년도에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가출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에 의하면, 가출 이후에 청소년의 37.8%가 가게에서 물건을 훔친 적이 있고, 29.4%가 타인을 폭행한 적이 있으며, 11.2%가 본드나 가스를 흡입한 적이 있고, 여자 청소년의 12.4%가 성매매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2002). 일반적으로 가출청소년은 절도·강도, 폭력, 약물남용, 성매매 등 비교적 심각한 수준의 비행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원혜옥, 2001;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2002). 또한 지난 2002년 청소년보호위원회 조사에 의하면, 가출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경우, 19세 미만 금지 매체 이용 경험에 있어서 가출경험이 없는 학생들보다 높은 이용률을 나타내고 있다.⁸⁾

8) 청소년보호위원회(2002) 조사에서는 가출경험이 있는 청소년들 가운데 성인용만화, 소설, 잡지책 등 간행물 이용경험이 있는 학생은 조사대상자의 75.5%, 성인용 영화·비디오 이용 경험은 74.3%, 인터넷 음란사이트 경험은 71.7%로 나타나는 반면, 가출경험이 없는 일반학생들 중에서는 성인용 만화, 소설, 잡지책 등 간행물 이용 경험은 50.8%, 성인용 영화·비디오 이용 경험은 49.23%, 인터넷 음란사이트 이용 경험은 50.7%로 훨씬 낮게 나타난다. 유해약물의 경우, 가출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에서는 90.5%가 음주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에, 가출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 중에서 68.7%가 음주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본드, 신나, 가스 등 흡입제 사용 경험과 관련해서는 가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에서 7.1%가 사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가출 경험이 없는 학생들 중에서는 1.6%만이 흡입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가출경험과 유해업소 출입도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출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대체로 유해업소 출입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화방, 전자오락실, 노래방 등에 있어서는 가출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출입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피시방의 경우에는 예외였다. 반면, 유해업소 중에서도 호프집·소

둘째, 가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비행수준은 가출 경험이 없는 일반 청소년의 비행 수준보다 더 높다. 연성진·민수홍(2004)의 연구에 의하면, 물건 절도의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가출 경험이 없는 청소년 중에서 36.2%를 차지했는데, 가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에서는 49.5%를 차지했다. 타인폭행, 금품 강탈의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가출 경험이 없는 청소년 중에서 각각 32.5%, 21.7%를 차지했지만, 가출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에서는 56.7%, 35.3%를 차지했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서 가출을 경험한 청소년의 비행 경험은 가출을 경험하지 않은 청소년의 비행경험에 비해서 더욱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가출 청소년 중에서도 가출 상태에서의 비행이 가출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비행보다 많고, 가출기간이 길어지면 비행은 더욱 증가한다. 김준호·박정선(1993)의 연구에서는 가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출 상태에서의 비행과 집에 있을 때의 비행에 대해서 조사하였는데, 가출 상태에서의 비행이 더욱 높았다. 외국의 사례조사에서도 가출 상태의 비행이 집에서의 비행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가출기간이 1년 이상인 집단에서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들은 청소년이 가출을 하게 되면 비행을 저지르기 쉽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렇다면 가출과 비행, 범죄의 관계는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연성진과 민수홍(2004)은 사회통제이론, 자기통제이론, 범죄기회이론의 관점에서 가출과 비행, 범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먼저 사회통제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청소년의 가출은 가정의 부모와 학교의 교사를 통해 이뤄지던 청소년에 대한 감독과 통제가 일시에 사라지는 계기가 되고, 그 결과 가출 청소년은 또래집단과 마찬가지로 잘못

주방, 비디오방, 카페, 락카페, 나이트클럽의 경우는 가출 경험이 있는 학생들에서 각각 58.4%, 40.5%, 64.3%, 27.3%로 나타나서 그렇지 않은 학생들의 21.9%, 20.4%, 40.6%, 14.1%, 14.7%보다 약 20%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된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현저하게 낮아져서 비행을 저지르기 쉽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자기통제이론의 관점에서 보자면, 가출을 하는 청소년은 자기 통제력이 약한 충동적인 아이들로서, 이들은 즉각적이고 손쉬운 욕구 충족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서 다른 청소년들보다 범죄나 비행을 저지르기 쉽다고 설명한다. 세 번째로 범죄기회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가출 청소년들은 가출을 통해서 범죄나 비행을 저지를 기회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집에서 생활할 때와는 달리 가출을 하게 되면, 친구들과 어울려 유흥가를 배회하기 쉽고, 술이나 담배·약물에 접하기 쉬우며, 생계를 유지해야 할 필요에서 매춘이나 절도의 유혹도 커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들은 각각 가출과 비행, 범죄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력을 갖지만,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김지혜의 연구(2005a)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시각에서 가출과 비행의 관계에 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한다. 그것은 가출청소년의 비행을 상황적 맥락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⁹⁾ 김지혜는 상징적 상호작용이론의 시각에서 청소년 비행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목할 만한 세 가지 상황요인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청소년이 가출함으로써 집을 떠나 당면하는 사회경험, 특히 부정적인 사회경험에 주목하는 것이고, 청소년이 가출한 상황에서 사회가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 곧 사회적 낙인에 주목하는 것이며, 청소년이 가출한 상황에서 교류하고 있는 집단, 특히 비행집단에 주목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김지혜는 가출 청소년이 비행에 빠지게 되는 것은 가출청소년들이 가출한 후 부딪히게 되는 부정적 사회경험(사회적 방임, 범죄 피해, 부정적 노동경험 등)과의 상호작용의 결과이며, 가출청소년으로서의 자신에 대한 사회적 낙인(social stigma)을 인식하게 된 결과이며, 가출 후 접촉하게 된 비행집단

9) 상징적 상호작용이론을 통해서 청소년 비행을 설명하려는 이론적 시도는 이미 Heimer(1989), Matsueda(1992)에 의해서 이뤄졌으며, 국내에서도 이성식(1995)에 의해서 이뤄진 바 있다.

들과의 교제의 결과라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은 가출청소년의 비행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

상징적 상호작용이론의 시각을 취하고 있는 김지혜의 연구(2005a)에서 특별히 주목되는 부분은 부정적 사회경험에 대한 검토이다. 이 연구에서 가출청소년이 경험하는 부정적 사회경험은 사회적 방임, 범죄피해, 부정적 노동경험 등이 대표적 형태로 제시된다. 여기에서 사회적 방임이란 청소년이 사회로부터 도움이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거리에서 굶주리고 노숙을 하는 채로 지내는 상황을 말한다. 김지혜(2003)는 가출한 청소년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초기 모습은 갈 곳을 찾아 돌아다니는 것이라고 묘사한다. 청소년들은 가출한 후 특정한 목적지를 찾지 못하고 배회하고 다니는 것이다. 청소년이 가출 후 생활에 대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많은 가출 청소년들이 극도로 빈곤한 상태에 처해 있다는 것이 드러난다.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2002)의 연구에 의하면, 가출 후 주로 잠잔 곳이 어디인지를 묻는 질문에 서, 남자청소년의 19.6%가 길거리나 아파트 계단 등에서 노숙을 하였다고 응답하였고, 18.9%가 피시방이나 만화방과 같은 업소에서 밤을 보냈다고 응답하였다. 같은 조사에서 가출 청소년들은 가출 후 직면하는 가장 어려운 점으로서, 58.0%가 주거 문제를 지적하였고, 14.0%가 경제적 어려움을, 8.0%가 건강문제를 지적하였다. 가출한 청소년들은 잠자리를 얻는 것, 먹을 것을 얻는 것, 아픈 것을 해결하는 것 등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가출청소년이 가출 후 경험하는 부정적 사회경험의 다른 형태는 범죄 피해이다. 일반적으로 가출청소년을 비행청소년으로 동일시하는 시각에서는 가출청소년이 범죄의 가해자라는 인식을 갖기 쉽지만, 가출청소년은 범죄의 피해자로 노출되어 있다. 특별히 가출청소년은 범죄에 광범위하게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먼저 가출청소년들이 가족과 학교와 같은 안전한 보호체계 안에 속해 있지 않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으며, 많은 시간을 거리에서 배회하며 보내는 가출청소년들의 상황이 범죄의도를 가진 사람들의 접근을 용이하게 한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런가하면, 가출청소년이 생계를 유지해야 할 시급한 필요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그들이 쉽게 금전적 유혹에 빠지고 비행과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조건이 된다. 연성진·민수홍(2004)의 연구에서는, 가출을 경험한 청소년 가운데 25.4%가 금품강취의 피해를 당한 적이 있고, 24.7%가 구타·협박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¹⁰⁾ 즉, 가출청소년의 범죄피해는 일반청소년의 범죄피해와 비교해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난다(연성진·민수홍, 2004). 다시 말하면, 많은 가출 청소년들이 범죄피해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다.

가출청소년이 경험하는 부정적 사회경험의 다른 형태는 부정적 노동경험이다. 여기에서 부정적 노동경험이란 청소년이 집을 떠난 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동시장에 참여할 때 겪는 차별과 부당한 경험들을 말한다. 김지혜(2003)의 연구에 의하면, 가출청소년들도 기본적으로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려는 동기를 갖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얼마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미성년자 취업은 신분 확인과 보호자 동의를 요구하기 때문에, 가출 상태에서 일을 구하기는 더욱 어려운 것이다. 가출 청소년이 노동 현장에서 겪는 부정적인 경험은 일자리를 구한 후에도 계속된다. 참여연대(2002)가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피해 접수 사례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장시간 근로를 강요당하거나, 부당한 일을 행하도록 강제당하거나, 부당하게 해고당한 경험이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부정적인 노동경험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의 25.4%가 급여를 제

10) 외국의 경우에도 가출청소년의 범죄피해가 자주 보고되고 있는데, Kipe 등(1997)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51%가 집에서 떠난 후 심하게 맞은 경험이 있고, 50%가 신체적 상해에 대한 위협을 받은 적이 있고, 19%가 칼로 공격당하거나 찔린 적이 있고, 15%가 성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었다.

대로 지급받지 못한 적이 있고, 15.9%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최대 근로시간인 8시간 이상 일한 적이 있었다(참여연대, 2002). 권병덕(2002)은 가출청소년의 경우 그들이 가출했다는 상황 때문에 숙식만 제공받고 돈은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자주 일어난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청소년의 가출경험은 비행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빚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가출과 비행이 서로 긴밀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김지혜, 2005a:7-8).

제2절 가출과 비행의 관계

가출 청소년은 가출을 통해 새로운 사회 환경에 직면한다. 가출청소년에게 다가온 새로운 환경은 잘 곳과 쉴 곳, 먹을 것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며, 열악한 취업조건 속에서 취업기회는 더욱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며, 비행 집단들을 접촉하게 될 가능성은 더욱 높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출 청소년은 가출 이전과 비교해서 더욱 잦은 비행의 기회에 노출된다. 이 절에서는 가출이 청소년의 비행 및 각종 유해환경에의 접촉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최근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이 절의 논의는 가출 청소년의 가출 행위가 유해환경 접촉과 비행을 증가시키고 있는 한편, 범죄와 범죄피해를 동시에 증가시킨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1. 가출과 지위비행

청소년의 가출은 흡연 및 음주와 같은 지위비행을 수반한다. 김경준 외(2006)의 연구에 의하면, 가출청소년 330명을 대상으로 흡연 경험을 조사한 결과, 무려 66.1%가 흡연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가출청소년의 거의 대부분이 흡연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 조사에서 흡연 정도를 함께 조사한 결과, 하루에 반 갑 이상 상습적으로 흡연하고 있는 청소년이 45.5%나 되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최근 국가청소년위원회(2006)의 조사에서 전국 중·고등학교 재학생 14,430명을 대상으로 최근 1년간 흡연을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흡연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14.9%였던 것과 비교하면(국가청소년위원회, 2006: 128) 매우 높은 수치이다. 가출청소년의 높은 흡연율은 국가청소년위원회(2006)의 조사에서도 확인된다. 이 조사에서는 가출청소년 326명을 대상으로 최근 1년간 흡연을 한 적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53.4%에게서 흡연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가청소년위원회, 2006:136).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일반 청소년의 흡연율은 15% 정도인데 비해서, 가출청소년의 흡연율은 50%를 넘어선다.

김경준 외(2006)의 연구에서는 가출청소년의 음주 경험도 조사하고 있는데, 조사대상 가출청소년 330명 중에서 80%가 음주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 음주를 하는 가출청소년 가운데, 51.2%는 특별한 일이 있는 경우에만 음주를 하였고, 8.5%는 한 달에 1~2번 정도 음주를 하였으며, 20.3%는 1주일에 1번 이상 상습적으로 음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최근 국가청소년위원회(2006)에서 일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최근 1년 동안 술을 마신 적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47.6%가 술을 마신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결과(국가청소년위원회, 2006:100)와 비교해서 볼 때 매우 높은 수치이다. 가출청소년의 높은 음주율은 국가청소년위원회 조사(2006)에서도 확인된다. 이 조사에서 가출청소년을 대상으로 음주경험 여부를 질문하였을 때, 65.0%가 술을 마신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국가청소년위원회, 2006:99). 이러한 조사결과를 종합하면, 일반 청소년의 음주율은 50%에 미치지 못하는데 비해서, 가출청소년의 음주율은 국가청소년위원회 조사에 의하면 65%, 김경준의 조사에 의하면, 80% 정도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2005년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조사(윤현영·강진

구, 2005)의 조사에 의하면, 청소년 컴퓨터에 입소한 가출청소년의 48.2%가 술·담배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들은 가출청소년이 전반적으로 지위비행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2. 가출과 유해환경 접촉 및 비행 경험

가출청소년들은 일반학생과 비교해서 유해환경 접촉경험이 더욱 높다. 국가청소년위원회(2006)의 조사에서는 일반청소년과 위기청소년의 유해환경 접촉실태를 비교하고 있는데, <표7>은 조사대상자들이 만화방, 전자오락실, 피시방, 노래방, 화상채팅노래방, 비디오방, 카페, 호프집과 소주집, 나이트클럽 등의 업소를 이용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결과 중에서 일반청소년 통계자료와 가출청소년 통계자료를 뽑아 비교한 것이다.

<표7> 일반청소년과 가출청소년의 유해환경 접촉실태 비교(2006년)
(단위: %)

	일반 학생			가출청소년		
	있다	없다	무응답	있다	없다	무응답
만화방	43.5	55.5	1.5	52.1	46.6	1.2
전자오락실	80.0	18.6	1.5	78.5	20.2	1.2
피시방	87.7	11.1	1.2	90.5	8.0	1.5
노래방	91.7	7.0	1.3	90.5	8.0	1.5
화상채팅노래방	7.7	90.5	1.8	12.0	86.2	1.8
비디오방	19.4	78.4	1.7	38.0	60.4	1.5
카페	31.1	67.2	1.8	48.2	50.3	1.5
호프집, 소주집	22.4	75.9	1.7	45.7	52.8	1.5
나이트클럽	3.4	94.7	1.8	16.6	81.9	1.5

출처: 출처: 국가청소년위원회(2006), 『청소년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 통계표』 재구성.

일반 학생과 가출청소년의 유해환경 접촉실태를 비교해 보면, 전자오락실, 피시방, 노래방의 경우에는 일반학생과 가출청소년의 이용률에 큰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피시방의 경우에는 가출청소년의 이용경험이 조금 더 높지만, 전자오락실과 노래방의 경우에는 일반 학생들의 이용경험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난다. 전자오락실이나 피시방, 노래방 등은 일반 학생들도 대다수가 이용경험이 있는 업소로서, 가출청소년의 이용경험과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일반 학생과 비교하여 가출청소년의 이용경험이 높은 업소는 만화방, 화상채팅노래방, 카페, 호프집과 소주집, 나이트클럽 등이다. 비디오방의 경우, 일반학생들의 이용경험은 19.4% 정도인데, 가출청소년은 38.0%에게서 이용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호프집과 소주집의 경우에는 일반학생들의 22.4%가 이용경험이 있는 반면, 가출청소년은 45.7%가 이용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트클럽의 경우에도 일반학생은 3.4%가 이용경험이 있을 뿐이었지만, 가출청소년은 16.6%에게서 이용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로 살펴볼 때, 가출청소년들은 일반학생들과 비교해서 유해환경 접촉경험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가출청소년은 일반청소년과 비교해서 성인매체 이용경험이 더욱 높다. <표8>는 국가청소년위원회(2006) 조사 자료에서 일반학생과 가출청소년의 성인매체 접촉 경험을 비교한 것이다.

〈표8〉 일반학생과 가출청소년의 성인매체 이용경험 비교(단위: %)

유해매체 종류	일반학생		가출청소년	
	있다	없다	있다	없다
19세미만 구독불가 만화, 소설, 잡지책 등 성인간행물	36.5	63.5	55.2	44.8
성인용 비디오, 영화	39.5	60.5	62.0	38.0
음란사이트(19세미만 이용불가 성인용 사이트)	38.5	61.6	46.9	53.1

출처: 국가청소년위원회(2006), 『청소년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 통계표』 재구성.

일반 학생과 가출청소년의 성인매체 접촉실태를 비교해 보면, 19세미만 구독 불가 만화, 소설, 잡지책 등 성인간행물의 접촉경험은 일반학생이 36.5%인데 비해서, 가출청소년은 55.2%로 나타났으며, 성인용 비디오나 영화 등의 접촉경험은 일반학생이 39.5%인데 비해서, 가출청소년은 62.0%로 나타났다. 이 두 매체에 있어서 가출청소년은 일반학생보다 20% 가량 접촉율이 높다. 음란사이트 접촉경험에서도 가출청소년은 일반학생과 비교해서 8% 가량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조사결과로 볼 때, 가출청소년은 일반학생과 비교해서 성인매체 접촉율이 더욱 높다고 할 수 있다.

〈표9〉 일반학생과 가출청소년의 흡입제 이용경험 비교(단위: %)

본드, 가스, 신나 등 흡입제 이용 경험	일반학생			가출청소년		
	있다	없다	무응답	있다	없다	무응답
평생동안	4.8	94.7	0.5	5.9	92.4	1.7
1년 동안	4.1	95.5	0.4	5.9	94.1	0.0

출처: 국가청소년위원회(2006), 『청소년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 통계표』 재구성.

가출청소년은 일반학생에 비해서 본드, 가스, 신나 등 흡입제 이용경험이 더욱 높다. <표9>는 국가청소년위원회(2006) 조사 자료에서 일반학생과 가출청소년의 흡입제 이용 경험을 비교한 것이다. 일반학생은 평생 동안 본드, 가스, 신나 등 흡입제 이용 경험이 4.8% 정도인데 비해서, 가출 청소년은 5.9%이다. 1년 동안 이용 경험을 비교하면, 일반학생이 4.1%인데 비해서 가출청소년은 5.9%이다. 그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가출청소년의 흡입제 이용경험은 일반 학생에 비해서 높다.

이러한 조사결과가 말해주는 것은 가출 청소년 유해매체 접촉이 일반 학생과 비교해서 더욱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조사결과를 통해서도 가출 청소년의 높은 유해매체 접촉률이 가출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가출 이전부터 높았던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이러한 모호한 점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2006) 조사에서는 가출 전후 청소년이 경험한 비행들을 비교하였다. 이 조사결과는 가출요인이 비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필 수 있게 한다.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2006) 조사에서는 가출 전후 청소년이 경험한 문제행동을 조사하였다. 이 조사에서는 폭력행동, 돈뺏기, 돈이나 물건 훔침, 성인유흥업소 출입, 성인유흥업소 취업, 이성과의 혼숙, 성관계, 흡연, 음주, 환각제나 약물 복용, 무작정 떠돌아다님, 음란매체 시청, 성매매, 성병, 임신, 자살생각, 자살시도 등을 조사하였다.

먼저 가출 전후 폭행 경험을 살펴보면, 가출 전 폭행을 전혀 해본 적이 없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61.8% 인데 반해, 가출 후 폭행을 전혀 해본 적이 없다는 응답은 62.8%로 나타났다. 가출 후 폭행 경험은 예상과는 달리 다소 줄어든 것이다. 그러나 가출 후 폭행 횟수는 증가하고 있다.

돈뺏기 경험을 살펴보면, 한번이라도 돈뺏기를 해 보았다는 응답이 가출전(32.8%)보다 가출 후(40.9%)로 증가하였으며, 그 횟수도 가출 후 더 증가하였다.

돈이나 물건 훔침의 경험을 살펴보면, 가출 전에 한 번이라도 남의 돈이 물건을 훔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46.2%였는데, 가출 후에는 45.6%로 오히려 낮아졌다. 그러나 일주일에 3번 이상 훔친 경우는 가출 전에는 3.3%였으나 가출 후에는 7.1%로 높아졌다.

성인유용업소 출입을 살펴보면, 가출 전에 성인 유용업소에 출입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15.4%였는데, 가출 후에는 23.1%로 더 높아졌으며, 출입 빈도도 가출 후에 더욱 증가하였다.

성인 유용업소 취업을 살펴보면, 가출 전에 성인유용업소에 취업한 적이 있는 경우는 7.4%였는데, 가출 후에는 13.8%로 증가하였다. 가출 전과 후 유용업소 취업은 남자가 여자보다 다소 높았다.

이성과의 혼숙을 살펴보면, 가출 전에 이성과 혼숙을 한 적이 있는 경우는 21.7%였는데, 가출 후에는 30.9%로 높아졌으며, 그 횟수도 가출 전보다 가출 후에 더욱 증가하였다.

이성과의 성경험을 살펴보면, 가출 전에 한 번이라도 이성과 성경험을 해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20.9%였는데, 가출 후에는 29.9%로 높아졌다.

흡연의 경험을 살펴보면, 가출 전에 흡연을 해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59.7%였는데, 가출 후에는 66.4%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음주 경험을 살펴보면, 가출 전에 음주를 해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64.8%였는데, 가출 후에는 67.4%로 다소 높아졌다. 특히 가출 전에는 일주일에 3번 이상 마신다는 응답이 14.0%였는데 비해서 가출 후에는 23.2%로 증가하였다.

환각제나 약물복용의 경험을 살펴보면, 가출 전에 한 번이라도 환각제나 약물복용을 해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4.9%였는데, 가출 후에는 9.9%가 환각제나 약물을 복용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해 2배 가까운 증가를 보였다.

무작정 떠돌아다니는 경험을 살펴보면, 가출 전에 한 번이라도 해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43.7%였는데, 가출 후에는 58.4%로 증가하였다. 특히

일주일에 3번 이상 떠돌아다니는 경우가 가출 전에는 11.2%였는데, 가출 후에는 22.3%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음란영화, 비디오 시청 경험을 살펴보면, 가출 전에 한 번이라도 시청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45.4%였는데, 가출 후에는 39.7%가 시청 경험이 있다고 응답해 오히려 가출 후 다소 감소하였다.

돈을 받고 이성과 성관계를 가진 경험을 살펴보면, 가출 전에 한 번이라도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4.9%였는데, 가출 후에는 9.9%로 약 2배 가량 증가하였다.

성병을 가진 경험을 살펴보면, 가출 전에 한 번이라고 성병을 가진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6.1%였는데, 가출 후에는 9.1%로 증가하였다.

임신을 하였거나 시킨 경험을 살펴보면, 가출 전에 한 번이라고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6.1%였는데, 가출 후에는 8.5%로 증가하였다.

자살생각을 살펴보면, 가출 전에 한 번이라도 자살을 생각해 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59.1%였는데, 가출 후에는 오히려 54.9%로 낮아졌다.

자살시도를 살펴보면, 가출 전에 한 번이라도 자살을 시도해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29.2%였는데, 가출 후에는 25.5%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표10〉가출 전후 문제행동 경험 조사 (단위: %)

문제행동 유형	가출 전		가출 후	
	없다	있다	없다	있다
폭행	61.8	38.2	62.8	37.2
돈뺏기	67.2	32.8	59.1	40.9
돈이나 물건 훔침	53.8	46.2	54.4	45.6
성인유흥업소 출입	84.6	15.4	76.9	23.1
성인유흥업소 취업	92.6	7.4	86.2	13.8
이성과 혼숙	78.3	21.7	69.1	30.9
이성과 성관계	79.1	20.9	70.1	29.9
흡연	40.3	59.7	33.6	66.4
음주	35.2	64.8	32.6	67.4
환각제 약물복용	95.1	4.9	90.1	9.9
음란매체 시청경험	54.6	45.4	60.3	39.7
돈을 받고 이성과 성관계	95.1	4.9	90.1	9.9
성병에 걸린 경험	93.9	6.1	90.9	9.1
임신하거나 시킨 경험	93.9	6.1	91.4	8.6
자살생각	41.0	59.0	45.1	54.9
자살시도	70.8	29.2	74.5	25.5

출처: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2006), 『가출청소년 및 청소년쉼터 실태 조사』 자료 재구성.

이 조사결과를 통해 가출청소년의 가출 전후 비행 증가 여부를 살펴보면, 폭행, 돈이나 물건 훔침, 음란매체 시청경험, 자살생각, 자살시도 등은 가출 후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었다. 폭행 행위와 돈이나 물건을 훔치는 행위는 가출 후 근소한 차이로 줄어든 반면, 음란매체 시청, 자살생각, 자살시도 등은 5%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음란매체 시청 경험은 인터넷 환경에서 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볼 때 가출 상태에 있는 청소년은 음란매체 접촉 기회 자체가 더욱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또 가출 후 더욱 열악한 생존환경 속에서 자살생각과 자살시도가 줄어들었다고 하는 것은 자살 생각이 의식주의 어려움에서 비롯되기보다는 심리적 문제에서 더욱 비롯된다는 점에서 볼 때, 가출이 자살충동이

있는 청소년에게는 어느 정도 심리적 안정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¹¹⁾

반면에, 가출 청소년은 가출 이후 이성교 혼숙을 하거나 성관계를 갖는 경험이 각각 9% 가량씩 늘어났으며, 남의 돈을 뺏는 행위나 유흥업소에 출입하는 행위가 각각 8% 가량씩 늘어났다. 유흥업소 취업, 환각제 약물복용, 돈을 받고 이성교 성관계를 맺는 행위도 5% 이상씩 늘어났다. 즉, 청소년의 가출은 성적인 문란함과 유흥업소 출입과 취업, 환각제 복용, 성매매 등을 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출 청소년이 비행 가능성이 높다는 조사결과는 연성진·민수홍(2004)의 연구에서도 확인된다. 이 조사에서는 가출 후 한번이라도 여러 가지 비행 유형을 저지른 경험이 있는지를 조사하였는데, 조사대상자의 23.4%는 한번이라도 폭력 비행을 저지른 경험이 있고, 36.8%는 절도비행을 저지른 경험이 있으며, 61.2%는 술을 마신 경험이 있고, 67.7%는 담배를 피운 경험이 있으며, 23.7%는 원조교제를 포함한 성관계를 맺은 경험이 있다. 26%는 유흥업소에 출입한 경험이 있고, 26.2%는 관람불가 영화를 본 경험이 있으며, 22.7%는 음란서적이거나 음란 영상을 본 경험이 있고, 6.8%는 본드나 환각제를 복용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성진·민수홍(2004)의 조사에서는 가출과 비행의 관련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데, 그 분석결과에 따르면, 모든 비행유형에 있어서 가출이 비행 정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 의하면, 가출경험이 없는 응답자의 32% 정도가 타인폭행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가출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57% 정도가 타인폭행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가출경험이 없는 응답자의 12% 정도가 금품강탈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가출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35% 정도는 금품강탈경험이 있다고 응

11) 한편, 김경준 외(2006)의 연구에 의하면, 가출청소년들은 일반청소년에 비교해서 자살기도 경험이 더욱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조사에서는 가출청소년 330명 가운데 28.8%인 95명이 자해행위나 자살시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러한 수치는 청소년보호위원회(2004)의 연구에서 자살시도 경험 청소년이 12.8%였던 것과 비교해 볼 때,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가출청소년이 일반청소년에 비해서 자살 위험이 높아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집단이라는 것을 말해 준다.

답하였다. 가출경험이 없는 응답자의 36% 정도가 물건절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가출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50% 정도가 물건절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성관계 경험에서도 큰 차이가 나타났는데, 가출경험이 없는 응답자의 10%만이 성관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가출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36%가 성관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근신·정학처분에 있어서 두 집단은 큰 차이를 보였다. 가출 경험이 없는 청소년의 6.2%만이 근신·정학처분을 받았다고 응답하였지만, 가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24%가 근신·정학처분을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자살 시도에 있어서도 가출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출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경우 18% 정도가 자살시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가출 경험이 없는 청소년의 6% 정도만이 자살시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연성진·민수홍(2004)의 조사에서는 가출 경험이 지난 1년간의 비행과 관련이 있는지를 교차분석을 통해서 조사하였는데, 포르노 시청을 제외한 모든 유형(술집 출입, 흡연, 무단 외박, 학교 무단결석)에서 가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보다 비행 경험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술집 출입 경험에 있어서는 가출 경험이 없는 응답자의 41% 정도가 한 번 이상 술집에 출입한 경험이 있는 반면, 가출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66%가 한번 이상 술집을 출입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 경험을 보면, 가출 경험이 없는 청소년의 31%가 흡연 경험이 있는 반면, 가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76%가 흡연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에 기초하여 볼 때, 가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할 수 있다.

3. 가출 후 부정적 사회경험과 비행의 관계

가출 청소년의 비행은 가출 후 사회적 경험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즉, 청소년이 가출 후 접하는 사회적 환경이 청소년들을 비행과 범죄에 가담하도록 하거나 그 희생자가 되게 한다. 또한 가출청소년이 가출한 후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합법적 취업기회의 부족, 비행 기회의 접촉, 비행집단과의 접촉 등이 청소년의 비행을 야기한다(김지혜, 2003). 가출청소년들은 대부분 가출 이후 거리생활을 시작하며 생계를 위해 일을 찾지만, 이들에게 합법적으로 제공되는 일자리는 매우 제한되어 있다. 반면에 비행을 접촉할 기회와 비행집단과의 접촉기회는 더욱 확대되어 있다. 가출 청소년이 경험하는 이러한 새로운 사회 환경이 이들로 하여금 성매매나 폭력 등과 같은 범죄와 관련을 맺게 한다고 할 수 있다.

김지혜(2005)의 연구에서는 가출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청소년은 부정적 사회경험을 더 많이 하고 있으며, 부정적 사회경험을 많이 한 청소년은 비행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출 청소년들은 가출하여 생활하는 동안 기본적인 생계의 문제와 거리에서의 범죄피해, 노동현장에서의 부당한 경험에 광범위하게 노출되어 있으며, 이러한 경험이 비행을 유발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김지혜(2005)는 그의 연구에서 가출기간이 오래된 청소년은 비행집단과 더 많이 교류하며, 이 비행집단과의 교류는 비행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서더랜드(Sutherland, 1947)의 차별적 교제이론을 통해서도 강조되어 왔는데, 그것은 비행문화가 비행의 형성에 매우 직접적이고 주요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시각에서 보자면, 비행집단에 흡수된 청소년이 비행행동을 하는 것은 비행문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사회화의 결과물로서 자연스러운 귀결이라고 볼 수 있다(Stryker, 2002). 김지혜(2005)는 그의 연구에서 가출기간이 비행집단과의 교류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집을 떠나 있는 상황이 길어진다는 것은 가출청소년이 기존에 맺어온 사회적 관계와 멀어지는 것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가출청소년들은 비행집단과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3절 가출과 범죄피해

일반적으로 가출청소년을 범죄와 관련하여 이해할 때, 피해자라기보다는 가해자라는 인식이 지배해 왔다. 가출 청소년들에게는 본래 비행의 소양이 있으며, 가출을 한 후에는 비행문화를 이끄는 주체라는 인식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 인식과는 달리 가출청소년들은 범죄의 가해자라기보다는 범죄의 피해자로서 존재한다.

가출청소년들은 가정폭력의 피해자이다. 김경준 외(2006:274)의 연구에서는 가출청소년이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당한 폭력경험과 가족구성원 간의 폭력 경험을 조사하고 있는데, 조사대상 가출청소년 330명 가운데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발에 차이거나 깨물리거나 주먹에 맞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53.9%였고, 부모님이 휘두르는 몽둥이나 굵은 막대기, 혁대로 맞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50.6%였으며, 부모님이 칼이나 흉기로 위협하는 것을 경험한 청소년도 14.5%나 되었다. 가출청소년의 절반 정도는 가정 내에서 부모님으로부터 신체적 학대를 경험한 적이 있었다. 가출청소년이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정서적 학대를 당한 경험은 더욱 높게 나타났는데, 가출청소년이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부모로부터 꾸짖음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56.5%였으며, 부모로부터 “너만 없으면 속이 편할 것이다”는 말을 들은 경험이 있는 경우가 67.9%였다. 가출청소년이 부모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방임상태로 내버려진 경우도 적지 않았다. 부모님이 외출하여 어두워질 때까지 혼자서 집은 본 적이

있는 경우가 70.6%였고, 더러운 옷을 입고 지내거나 습기 찬 이부자리에서 잠을 잔 적이 있는 경우가 32.1%였으며, 고열이 나거나 아파도 부모로부터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경우가 28.7%였고, 이유 없이 학교에 결석해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을 경험한 경우가 28.0%였다. 한편 가출청소년 가운데에는 부모로부터 성적인 폭력을 경험한 경우도 일부 있었다. 자신이 싫은데도 부모님이 자신의 몸(성기)를 만진 것을 경험한 경우가 6.7%였으며, 자신이 싫은데도 부모님이 억지로 옷을 벗게 해서 내 몸을 보려고 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5.5%였다. 가출청소년 중에는 가정 내에서 부모님들 사이에 폭력이 행해지는 것을 경험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집안 내에서 부모님 중 한 분이 다른 한 분을 때리는 것을 본 경우가 30.0%였으며, 부모님이 서로 욕을 하는 것을 본 경험이 있는 경우가 53.3%였다. 즉, 가출청소년들은 가정해체와 가정폭력의 피해자로서 존재한다는 것이다.

가출청소년은 학교폭력의 피해자이기도 하다. 김경준 외(2006)의 연구에서는 가출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지난 1년 동안 학교에서 동급생이나 선후배로부터 폭력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이 조사에 의하면, 듣기 싫은 별명을 듣고 놀림을 받거나 조롱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47.1%였고, 고의적으로 따돌림을 당하거나 골탕을 먹은 경험이 있는 경우가 32.8%였으며, 협박이나 위협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가 31.3%였고, 겁을 주거나 때려서 돈이나 물건을 빼앗겨 본 경험이 있는 경우가 28.0%였다. 뺨이나 얼굴, 머리 등을 손이나 주먹으로 맞은 경험이 있는 경우도 40.5%나 되었다. 전체적으로 가출청소년의 30~40%가 학교에서 폭력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조사 결과는 가출청소년들이 학교폭력의 피해자이기도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으로서, 학교에서 가출청소년들을 밀어내는 압출요인(push factor)이 작용했음을 짐작하게 한다.

또한 가출청소년은 범죄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2006) 조사에 의하면, 쉼터 이용 가출청소년을 대상으로 쉼터에 입소하기 전 잠을 해결한 곳 1 순위를 조사한 결과 친구나 아는 사람의 집이 43.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찜질방(13.1%), 아파트 계단이나 옥상 지하실(8.8%), 피시방이나 만화방(7.5%), 다른 청소년 쉼터 등 수용시설(7.3%), 여관·모텔·여인숙 등 숙박시설(5.3%), 놀이터나 공원(4.0%), 교회나 성당 등 종교시설(3.0%) 순이었다. 이 조사에서 볼 때, 가출청소년이 쉼터나 종교기관 등 신뢰할 만한 장소를 이용한 경우는 불과 10%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대개가 불안정한 장소에서 잠을 해결하고 있는데, 12.8%는 옥상이나 공원 등에서 노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가출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범죄환경에 광범위하게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이 조사 결과에 의하면, 가출청소년들은 쉼터 입소 전 잠을 해결한 곳에서 연령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는데, 13세 이하의 청소년들은 찜질방, 아파트 계단이나 옥상, 공원 놀이터 등에서 잠자리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다. 즉, 다른 연령층과 비교해서 13세 이하의 가출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범죄환경에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조사에서는 또한 잠을 해결한 곳 2순위를 조사하였는데, 가장 높은 응답을 보인 곳은 찜질방(31.1%)이었으며, 그 다음이 친구나 아는 사람의 집(13.4%), 놀이터, 공원 등(9.2%), 청소년 쉼터 등 수용시설(9.0%), 숙박시설(8.7%) 순이었다. 2004년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실태조사에서 중복응답으로 쉼터 입소 전 잠자리를 조사한 결과, 친구나 아는 사람의 집이 54.4%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다른 청소년 쉼터 등 수용시설(31.3%), 찜질방(29.5%) 피시방이나 만화방(18.7%) 순이었던 것과 비교해 볼 때, 2006년 조사에서는 상대적으로 찜질방의 이용이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가출 청소년들은 열악한 아르바이트 환경에 놓여 있다.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2006) 조사에 의하면, 가출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업소에서

하루 평균 일하는 시간은 남자가 7.2시간, 여자가 7.8시간이었다. 가출 기간 중 아르바이트를 한 청소년의 평균 아르바이트 1일 근무시간은 8시간 이하가 43.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12시간 이하(34.4%), 4시간 이하(18.6%), 13시간 이상(4.1%) 순이었다. 이 조사결과로 보면, 가출청소년들의 38.5%가 8시간 이상 일하였으며, 4.1%는 13시간 이상 과도하게 일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가출청소년이 최근 받은 아르바이트 평균 시급은 남자가 3,875원, 여자가 4,308원이었으며, 조사대상자의 과반수 이상이 3,000원 미만의 시급을 받는 열악한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또한 가출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조사대상자의 1/5 이상은 보수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가 있었으며, 16.8%는 일하다가 다친 경험이 있었고, 7.3%는 사장이나 손님에게 구타나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성희롱을 당한 경우가 7.7%였으며, 4.3%는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용돈과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성매매를 하였다는 응답도 6.9%에 이르렀다. 남자의 경우에는 일하다가 다침, 사장이나 손님에게 구타를 당함, 성폭행을 당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여자의 경우에는 보수를 제대로 받지 못함, 용돈과 생활비 마련을 위해 성매매를 하였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가출은 청소년의 범죄 피해와 관련성이 있다. 연성진·민수홍(2004)의 조사에서는 가출과 범죄 피해의 관련성에 대해서 조사하기 위해서 물건 파손 피해, 금품절도 피해, 금품강취 피해, 구타협박 피해, 친구들과로부터의 왕따 피해 등 5가지 유형이 가출과 관련성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 조사 결과 물건파손 피해 경험이나 금품절도 피해 경험은 가출과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밖의 피해 유형은 가출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출경험이 없는 응답자들은 18% 정도가 금품을 빼앗긴 적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가출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은 25% 정도가 금품강취 피해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타나 협박의

피해 경험에서도 두 집단간의 차이는 컸다. 가출경험이 없는 응답자들은 11% 정도가 구타나 협박 피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가출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은 25% 정도가 적어도 한번 이상 구타나 협박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가출청소년들은 5가지 피해유형 중에서도 학교에서 발생하기 쉬운 범죄피해 경험보다 길거리에서 당할 수 있는 범죄피해 경험이 더욱 높게 나타났다. 즉, 가출청소년들은 학교에서의 왕따 피해와 금품절도 피해 등에 있어서는 가출하지 않은 청소년들의 피해 경험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나, 길거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금품강취 피해경험, 구타 협박 피해 경험은 가출청소년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가출청소년은 범죄와의 관련성에 볼 때, 범죄의 가해자라기보다는 범죄의 피해자이다. 김지혜(2005:77)가 지적하고 있듯이, 가출청소년은 광범위한 피해에 노출되어 있는 약자이며, 청소년 비행은 오히려 이렇게 사회적으로 취약한 상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따라서 가출청소년의 비행은 개인의 도덕적 문제로 취급될 문제가 아니라, 이들에 대한 사회의 부적절한 대처의 결과로 해석되어야 한다.

제5장 가출청소년 비행 예방을 위한 정부의 대책

오늘날 가출청소년이 비행과 범죄에 노출되는 것은 자기통제이론에서 강조하는 개인적 자질과 특성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더욱 중요한 이유는 가출청소년을 둘러싼 가정환경과 가출 후에 경험하는 사회적 환경의 문제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가출청소년의 비행 예방을 위한 사회적 역할과 대책이 필요하다. 가출청소년 비행의 문제가 단지 개인적 차원에서의 자질과 특성의 문제라면 가출청소년 비행을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단지 비행을 일으키는 청소년을 교화하고 바로잡는 것 외에 달리 대책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가출청소년의 비행 문제는 개인적 차원의 문제를 넘어선 가정해체와 사회해체의 문제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가출청소년이 비행과 범죄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고 그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요구된다. 이 장에서는 정부가 가출청소년 비행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지원하는 청소년쉼터에 대한 소개와 함께 경찰에서의 가출청소년 대책을 소개한다.

제1절 청소년쉼터

1. 정부의 청소년 쉼터 지원과 제도적 지원

우리나라에서 가출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청소년쉼터¹²⁾가 생긴 것은 1992년부터이다. 청소년 가출이 사회문제로 등장한 것은 지난 1980년대 후반의 일이지만, 당시에 가출청소년은 비행청소년과 동일

12) 법률적으로 청소년 쉼터에 대한 별도의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청소년복지지원법 제 14조에 명시된 바를 따르면, 청소년 쉼터는 “가출청소년의 일시적인 생활지원과 선도, 가정·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청소년복지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시되어 비난과 처벌의 대상으로 존재할 뿐이었다. 그러나 가출청소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이들이 사회적인 보호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약자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1992년 처음으로 청소년 쉼터가 생기게 된 것이다.

청소년 쉼터의 운영주체는 주로 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등이다. 그 가운데 사단법인이 18개소(34.0%)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재단법인이 15개소(28.3%), 사회복지법인이 5개소(9.4%)이며, 법인이 아닌 기타 단체 등도 15개소(28.3%)이다.(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2006) 청소년쉼터 운영주체가 다양하고 법인이 아닌 단체가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청소년쉼터가 법적 제도적 지원을 받기 전에 청소년 복지에 뜻이 있는 단체나 개인이 쉼터를 자발적으로 운영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특히 1997년 외환 위기 이후에 가출청소년에게 거처를 제공하려는 종교기관에 의해서 설립된 청소년 쉼터들이 많았다. 청소년 기본법의 개정으로 청소년 쉼터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지원이 늘어나고 2005년 청소년 복지지원법의 시행으로 청소년쉼터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늘어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청소년단체가 운영하는 청소년 쉼터가 늘어나면서 사단법인의 형태를 가진 청소년단체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정부가 청소년쉼터의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가출청소년 보호와 지원을 위한 서비스가 시작되었다.¹³⁾ 김향초(2007)는 정부가 가출청소년에 대한 정책적 지원에 나선 시기를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하는데, 첫 단계는 청소년 쉼터가 문을 연 1992년부터 IMF 구제금융지원 시기인 1997년까지로서 청소년 가출이 국가정책의 대상으로서 인식되기 시작한 맹아기이고, 두 번째 단계는 1998년부터 2006년까지의 시기로서, 정부가 가출

13)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 제3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쉼터의 설치·운영 및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 예방과 선도를 위한 목적으로 본격적으로 청소년쉼터를 지원하면서 청소년 가출이 국가 정책 대상으로 자리잡는 시기이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2007년 이후로서, 정부가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제도를 정비하면서 새로운 도약이 이뤄지는 시기이다. 김향초의 구분에 기초해 볼 때, 정부의 청소년 가출 문제에 대한 관심은 정착을 넘어서 도약단계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쉼터를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기본법에 관련 조항을 만들었고, 2003년에 제정된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에 ‘청소년쉼터의 설치·운영’을 명시하였다. 이 법 제 14조 제 1항에 의하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출청소년의 일시적인 생활지원과 선도, 가정·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출청소년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부의 대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것은 2003년 제정된 청소년복지지원법이 2005년부터 시행되고, 2005년 청소년위원회가 발족되면서부터이다. 청소년위원회의 발족은 가출청소년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부의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¹⁴⁾

2. 가출청소년 보호시설 현황

가출청소년을 위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보호시설로서, 청소년종합지원센터, 그룹홈(공동생활가정), 청소년쉼터 등이 있는데, 대표적인 가출청소년보호시설인 청소년쉼터의 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 12월 31일 현

14) 청소년쉼터는 위기 상황에 있는 청소년을 돕는 다양한 청소년복지시설 중의 일부이다. 청소년위원회,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을 통해 지원을 받는 다양한 청소년복지시설들이 있다. 2005년 5월 현재 청소년위원회가 지원하는 기관에는 청소년쉼터 이외에 청소년종합지원센터, 해밀센터, 청소년상담센터, 청소년공부방, 비정규학교 등이 있고,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기관 중에는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지역아동센터·공부방, 수능공부방, 아동보호종합센터·아동학대 예방센터, 청소년자활지원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있으며,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기관 중에는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아동성폭력전담센터 등이 있다.

재 전국적으로 71개의 청소년쉼터가 운영되고 있다. 지역별로 경기도가 13개소로 가장 많고, 서울이 12개소, 인천과 대전이 각각 5개소, 전라북도가 4개소, 제주도가 2개소이며 나머지 시도는 3개소이다(국가청소년위원회, 2007:13).

<표11> 청소년 쉼터 현황 (2006.12.31 현재)

구분	쉼터현황						
	일시	단기			중장기		치료형
		남	여	혼성	남	여	
전국	7	16	22	5	10	11	0
서울	1	3	4	-	2	2	-
부산	1	1	1	-	-	-	-
대구	-	1	1	-	-	1	-
인천	1	1	1	-	1	1	-
광주	-	1	1	-	-	1	-
대전	2	1	1	-	-	1	-
울산	-	1	1	-	1	-	-
경기	2	1	4	4	1	1	-
강원	-	1	1	-	1	-	-
충북	-	1	1	-	1	-	-
충남	-	1	1	-	1	-	-
전북	-	-	1	1	1	1	-
전남	-	1	1	-	-	1	-
경북	-	1	1	-	-	1	-
경남	-	1	1	-	-	1	-
제주	-	-	1	-	1	-	-

출처: 국가청소년위원회(2007), 『2007년도 청소년쉼터 운영지침』
 주1) 전액지방비 지원쉼터도 포함됨.

국내에 있는 청소년 쉼터의 유형에는 단기쉼터, 중장기쉼터, 일시쉼터(드롭인 센터)가 있다. 이는 청소년들이 쉼터에 머무는 기간을 고려하여 분류한 것이다. 2006년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2006) 보고서에 의하면 일시쉼터(드롭인 센터)를 제외한 단기쉼터와 중장기 쉼터는 모두 53개이며, 그 가운데 단기쉼터는 34개소(64.2%)이고, 중장기쉼터는 19개소(35.9%)이다. 각 쉼터의 성격은 아래 <표12>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12> 청소년 쉼터 종류별 성격

구분	일시쉼터	단기쉼터	중장기쉼터
기간	24시간이내 일시보호	3개월내외의 단기보호	3개월이상 중장기보호
이용대상	일반청소년, 거리생활청소년	가출청소년	자립의지, 특별지원 가출청소년
기능	-위기개입상담, 진로지도, 적성검사 등 상담서비스 제공 -가출청소년 구조·발견, 청소년쉼터와 연결 -먹거리, 음료수 등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 등	-가출청소년 문제해결을 위한 상담·치료서비스 및 예방활동 전개 -의식주 및 의료 등 보호서비스제공 -가정 및 사회복지를 위한 가출청소년 분류, 연계·의뢰 서비스 제공 등	-가정복귀가 어렵거나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전환형, 가족형, 자립형, 치료형 등 특화된 서비스 제공
위치	이동형(차량), 고정형(청소년유동지역)	주요도심별	주택가
지향점	가출예방, 조기발견, 초기개입	보호, 가정 및 사회복지	자립지원

전국의 청소년 쉼터에서 보호하고 있는 가출청소년의 인원은 한 해 1

만 명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용교·홍봉선·윤현영(2005)의 조사에 의하면, 전국 30개 청소년 쉼터를 대상으로 각 쉼터별 평균 보호 실인원을 조사한 결과 한 쉼터에서 1년 동안 평균 130여명을 보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6년 12월 현재 전국적으로 71개소의 청소년 쉼터에 재정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전국적으로 약 9천명 가량의 가출청소년이 청소년 쉼터를 이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조사마다 그 수가 다르기는 하지만 가출청소년의 숫자를 대략 10만 명으로 추산하는 현실에서 볼 때, 청소년쉼터에서 보호받고 있는 가출청소년의 규모는 소수이다.

제2절 가출 청소년 보호를 위한 경찰의 활동

가출 청소년 보호를 위한 경찰의 역할은 대체로 소년경찰 활동의 범위 안에 있다. 가출청소년을 위한 경찰의 주요 활동은 가출청소년 신고접수, 유흥업소 등에서의 가출청소년 검색 활동,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 단속 활동,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및 단속 활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 단속 활동 등이다. 구체적으로 가출청소년 신고접수는 경찰을 통해서 이뤄지며, 접수된 가출 청소년 발생신고는 연령별·지역별·성별로 분류되어 가출청소년 통계의 기초자료를 이룬다.

가출청소년 검색활동은 집중 단속 기간을 설정하여 이뤄진다. 주로 유흥업소나 가출청소년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자체적으로 이뤄진다. 유해환경 주변에서의 각종 선도 캠페인 등도 가출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경찰의 활동이다.

청소년 보호법 위반사범 단속 활동은 청소년보호법에 위반되는 각종 사범, 곧 음란 폭력성 매체물 판매, 술 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 유흥주점 비디오방 등 유해업소에 청소년 고용 혹은 출입허용 등의 위반

사범에 대한 단속을 벌이는 것이다. 특별히 유해업소에서의 청소년 고용 단속 활동은 가출청소년을 발견하는 데 중요하다. 경찰은 청소년의 탈선을 조장하는 유해환경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음란, 폭력성 매체와 술 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청소년에게 판매하는 행위, 유흥주점, 비디오방 등 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출입시키는 행위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에 대해서 단속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2004년에는 총 15,962건의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을 적발하여 150명을 구속하고 15,812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및 단속활동(청소년 풍기사범단속)¹⁵⁾은 청소년들의 음주·흡연, 싸움·소란, 남녀혼숙, 흥기소지, 불량만화, 음란서적·비디오, 약물남용(환각물질소지) 활동을 단속하는 것인데, 경찰의 이러한 활동은 유해환경에 접근해 있는 가출청소년을 발견하고 비행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인 경찰의 주요 활동이다. 경찰은 매년 기간을 설정하여 학교 지도교사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청소년 풍기문란 행위에 대한 주기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유흥업소 등의 음란, 퇴폐영업이나 청소년에 대한 주류 판매행위, 만화가게, 비디오감상실 등의 음란물 상영행위 등은 청소년의 비행과 범죄를 유발시키는 직접·간접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소년 경찰은 청소년 비행 및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유흥가, 윤락가, 우범지역 등에서의 범죄요인 제거를 위하여 관할구역 내 유해업소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다. 2004년에는 총 105,607명의 풍기문란사범을 적발하여 행위정도가 중한 101명을 즉심에 회부하고 나머지는 가정이나 학교에 통보하거나 훈방조치하였다.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 단속 활동은 청소년을 고용한

15) 소년경찰직무규칙 제 14조에서는 경찰서장이 소년비행을 지역중심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비행이 빈발하는 지역(비행방지지구)을 선정하고 그 지역 내의 관계기관, 단체, 유지 및 주민의 협력을 얻어 환경의 정화 및 비행방지를 도모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제 18조에서는 경찰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거나 비행의 직접 또는 간접적 요인이 되는 매스컴, 공연장, 유기시설, 풍속영업소, 기타 사회의 범죄성 환경을 항시 배제하고 정화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 또는 권고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불법 유흥업소 단속, 청소년 윤락 강요행위 단속,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 단속 활동으로서 성매매 업소에 접근해 있는 가출청소년을 발견하고 보호하는데 효과적인 실제적인 경찰의 활동이다.

가출청소년 문제와 관련한 경찰의 주요 활동은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성보호법과 관련한 단속활동과 유해환경 단속활동을 통하여 유해환경에 접근해 있는 가출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비행과 범죄에 연루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경찰의 이러한 활동은 안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가출청소년 비행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활동이다. 앞에서 논의해 온 바와 같이, 가출 청소년이 비행에 연루되는 데에는 가출 후의 부정적인 사회경험의 영향이 크다. 다시 말하면 가출 후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 방황하는 동안에 접하게 되는 유해환경은 가출 청소년들로 하여금 비행과 범죄에 연루되게 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 이러한 점에서 경찰이 수행하는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활동과 각종 단속활동은 가출청소년이 비행에 연루되는 것을 막기 위한 효과적인 활동이 될 것이다.

제6장 가출청소년의 보호와 비행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제1절 청소년 쉼터 운영 관리의 개선방안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 관리하거나 위탁하여 운영 관리하고 있는 청소년 쉼터는 갈 곳이 없으며 쉴 곳이 없는 가출청소년들이 가장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다. 물론 가출청소년들이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지만, 가출 청소년의 다수에게는 귀가조치가 더 이상 해법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¹⁶⁾ 경찰을 통해 발견되어 귀가조치가 된 후에는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재가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충동적으로 가출한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가정으로의 복귀가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 되겠지만, 역기능적 가정에서 방출요인에 의해 가출한 청소년의 경우에는 가정으로의 복귀는 재가출을 가져올 뿐이다. 이들에게 유일한 해결책은 청소년 쉼터와 같은 안전한 공간이 제공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청소년 쉼터의 역할은 가출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그들이 비행과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데 중요하다. 그러나 청소년 쉼터는 아직까지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 절에서는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청소년 쉼터 운영의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1. 일시 쉼터(드롭인 센터)의 확대

16) 신탄청소년쉼터가 가출 청소년 48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족과의 연대감이 부족해 집과 거리를 오가는 전환형 가출과 가출을 해도 가족이 신경 쓰지 않는 방임형 가출의 비율이 각각 31.7%와 41.7%를 차지했다. 귀가조치로 문제가 해결되는 단순 갈등형 가출은 26.6%에 불과했다.

가출청소년들은 어떠한 형태의 규율이나 통제로부터 벗어난 청소년들이다. 가출청소년들이 단기와 중단기 청소년 쉼터를 실제 이용하는 비율은 그리 높지 않다. 아마도 그것은 이들에게 이러한 시설들이 자유롭지 못한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그들이 청소년 쉼터와 같은 보호기관을 기피하는 것은 이러한 기관들에서의 보호 프로그램이 '바람직한 생활'을 요구하는 선도와 상담 활동일 것이라는 예상 때문일 수 있다. 이러한 분위기의 보호시설은 가출청소년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오기 마련이다. 이들에게는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그들을 도와주는 기관이 필요하다. 가출청소년 보호시설은 이들이 부담 없이 다가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또 기존의 청소년 쉼터 시설을 이용하다가도 다시 길거리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다. 가출청소년들 가운데 청소년보호시설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는 일부이다. 다시 말하면 대다수의 가출청소년은 여전히 길거리를 방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길거리를 방황하는 가출청소년들을 위한 일시쉼터가 요구된다. 국내에서도 일시쉼터(드롭인 센터)가 운영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2006년 12월 31일 현재 전국적으로 고작 7개가 운영되고 있을 뿐이다.

일시쉼터는 외국의 드롭인 센터의 경우와 같이 기본적인 위기 중심적 서비스만을 제공하고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상담에 응하는 등 최대한 가출청소년이 편안한 분위기의 쉼터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드롭인 센터의 목표는 길거리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필요들을 채워줌으로써 이탈과 범죄에 빠지는 것을 막고, 스스로 서비스 수혜의 필요성을 갖도록 유도하며, 어떠한 심리적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가출청소년에게 적합한 상담과 치료 프로그램 및 쉼터와 연결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드롭인 센터는 가출청소년 밀집지역에서 간단한 의약품, 세탁시설, 샤워시설, 간단한 음

식 등을 갖추고 아무런 조건없이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센터의 특징은 하루 중 일정시간 동안 문을 열어놓고 찾아오는 청소년들에게 어떠한 개인 신상에 관한 질문도 하지 않은 채, 단지 그가 요구하는 서비스를 최대한 지원해 주고,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해 단기 쉼터와 같은 시설과 연결시켜 준다는 것이다. 청소년 밀집지역에 일시쉼터(드롭인 센터)가 설치되면 가출청소년은 현장에서 부담 없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유해환경에 대한 접촉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2. 청소년 쉼터의 양적 확대와 기능적 특성화

청소년보호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인 지원으로 단기 청소년 쉼터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쉼터의 수는 양적으로 크게 부족하다. 비공식통계이지만 일반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출경험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가출 청소년 수는 7만명에서 1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런데 가출청소년 쉼터 이용자 수는 전국 71개 청소년 쉼터에서 9천명 가량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체 가출청소년의 1/10 정도만이 청소년 쉼터를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청소년 쉼터의 양적 확대에는 일시, 단기, 중장기 쉼터 등 기간별로 균형적인 확대가 필요하다. 최근 청소년 쉼터의 확대는 단기 쉼터에 집중되어 있다. 2006년 12월 현재 일시쉼터는 7개이고, 단기쉼터는 43개이며, 중장기쉼터는 21개이다. 단기 청소년 쉼터 실무자들이 쉼터를 운영하며 겪는 큰 애로사항 가운데 하나는 일시보호 기간이 종료된 후 가정복귀가 불가능한 청소년들을 마땅히 인계할 시설이나 기관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정복귀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가출청소년들이 자립하기까지 위탁 보호할 수 있는 중·장기 보호시설은 균형적으로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차원에서 가출청소년 보호시설을 마련하는 데에는 한

계가 있다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가 민간보호시설에 각종 재정지원과 세제혜택을 제공하여 민간보호시설을 활성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청소년 쉼터의 확대는 단순한 양적 확대만이 아니라 기능적 특성화가 되어야 한다. 가출청소년들은 서로 다른 가출동기와 유형을 나타내며, 가출 후의 상태도 다양하다. 이러한 가출청소년의 다양한 유형과 형편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요구된다. 예를 들어 공부하기 싫거나 학교폭력에 연루되어 가출한 학교부적응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쉼터, 본드나 가스 등 약물문제를 지닌 가출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쉼터, 혹은 성문제를 지니고 있거나 성비행의 성향이 높은 가출청소년을 위한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쉼터 등 기능적으로 특성화된 쉼터가 요구된다. 가출청소년의 유형과 형편을 고려하지 않은 프로그램은 청소년 쉼터 이용률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현재 청소년 쉼터의 인력이나 재정, 그리고 시설로써는 가출청소년들의 유형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곤란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청소년 쉼터의 확대는 쉼터의 전문인력의 확충과 재정의 확대를 수반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며, 쉼터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기능적 확대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한 기능적으로 특성화된 쉼터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각 쉼터간의 연계망 구축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3. 청소년 쉼터, 1388전화,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인지도 제고

연성진·민수홍(2004)의 조사에서는 가출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가출청소년을 위한 쉼터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를 물은 결과, 45.7%가 쉼터의 존재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43.1%는 쉼터가 있다는 것은 들었지만 장소나 이용방법을 몰랐다고 응답했다. 쉼터의

이용방법과 장소를 알고 있었던 경우는 11.2%에 불과했다. 이 조사결과는 가출청소년의 대다수가 컴퓨터의 존재를 모르거나 컴퓨터의 이용방법, 장소를 몰라서 컴퓨터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컴퓨터를 통해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컴퓨터의 존재와 이용방법, 장소에 관한 홍보의 필요성을 말해준다. 다른 조사들에서는, 가출청소년들의 컴퓨터 이용률이 매우 낮다는 것이 자주 지적되고 있는데, 이 조사 결과는 컴퓨터 이용률이 낮은 이유가 가출청소년들의 컴퓨터 기피에도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적으로는 컴퓨터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컴퓨터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컴퓨터를 다양화하고, 서비스를 개선하는 것 못지않게 컴퓨터의 존재를 충분히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한국청소년컴퓨터협의회(2006) 조사에서는 1388전화 이용경험 여부를 조사하였는데¹⁷⁾, 전체 조사대상자의 1/5정도는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과반수 정도는 전혀 모른다고 응답하고 있다는 점에서 1388전화의 홍보 필요성을 말해준다. 한편, 컴퓨터이용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이용경험을 조사한 결과, 1388 전화와 마찬가지로 조사대상자의 1/5정도가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과반수 정도는 전혀 모른다고 응답하고 있었다.¹⁸⁾ 청소년 컴퓨터를 비롯하여, 1388,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존재에 대한 홍보는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2절 가출 청소년 관련 법 제도 개선

17) 이 조사 결과 이 전화를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48.4%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알지만 장소나 이용방법을 모른다'(19.3%), '이용한 적이 있다'(19.0%), '잘 안다'(13.3%)의 순이었다.

18) 이 조사에서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51.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이용한 적이 있다'(19.6%), '알지만 장소나 이용방법을 모른다'(19.4%), '잘 안다'(9.7%) 순이었다.

1. 취업기회의 확대와 노동조건 개선

가출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가출청소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이 연구에서 강조해 오고 있는 ‘부정적 노동경험’을 해소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가출청소년들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려는 동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되어 있고, 가출상태에서 일을 구하기는 더욱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가출청소년들이 일하는 업소는 주유소나 피시방, 음식점, 카페 등과 같은 곳들인데, 가출청소년의 신분을 악용하여 노동시간에 비해서 형편없이 낮은 임금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불법 유흥업소는 가출청소년들의 유혹의 대상이 되기 쉽다. 즉, 가출청소년들이 유흥업소 등에서 불법 고용되어 있는 것은 자발적 선택의 결과라기보다는 마땅히 일할 자리가 없는 데서 비롯된 결과이기 쉽다. 이러한 점에서 가출청소년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노동현장에서의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청소년 고용지원 및 단속과 관련한 사항을 처리할 청소년 취업상담센터를 설치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가출청소년 관련 업무의 일원화 및 체계화

정부 내 가출청소년 관련 소관부처는 교육인적자원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문화관광부, 여성부, 경찰청, 청소년보호위원회 등이 있는데, 가출청소년 전담부처가 없어서 부처간의 업무중복 및 책임회피가 발생하고, 업무의 일원화가 이뤄지지 않아 정책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가출청소년 가출 관련 소관부처가 많은 것은 효율성을 가져오기 보다는 업무 추진의 혼선을 야기하고 연계망 구축의 어려움을

가져온다. 가출청소년 관련 업무는 종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도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가출청소년 보호업무는 특정 업무별로 각각의 부처에 산재되어 있다. 즉 현재에는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청소년보호위원회 등 3개 기관에서 정책이 입안되고 집행되고 있는데, 청소년보호업무에 대한 정책 조정 권한을 갖고 있는 국무총리실 소속인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가출청소년 업무를 주관하는 부처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가출청소년 조기발견을 위한 통합지원시스템의 필요

가출청소년의 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가출 신고 및 접수 업무의 통합과 가출청소년 관련 제반 정보와 서비스의 통합이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가출 청소년 통합지원체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통합 지원체계가 구축됨으로써 가출청소년의 조기발견을 돕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다. 가출한 청소년의 70% 이상이 일시적 충동으로 가출한 청소년이다. 가출시간이 길어질수록 사회복귀가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가출청소년의 조기발견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가출청소년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는 신고센터의 설치, 긴급전화 운영, 24시간 서비스 제공체계가 필요하다.

제3절 가출청소년 보호를 위한 경찰의 제도 개선

1. 가출청소년 안전보호지역 설정

가출한 청소년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비디오방, 노래방, 피시방, 오락실 등의 유흥업소에서 보내는 경향이 있다. 가출한 청소년에게 이러한 공간

은 일시적인 피난처와 같은 공간이면서도 일탈과 범죄에 이르게 하는 매개공간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러한 유흥업소들이 유해환경에 접촉하게 될 가능성도 크다. 이러한 업소들을 가출청소년 조기발견과 보호시설 연계의 매개 공간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가출청소년들이 자주 출입하는 이러한 유흥업소들이 가출청소년 보호기관과의 연계하에 가출청소년들을 보호하는 장소가 될 수 있다면, 가출청소년 관리는 더욱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방법은 이러한 업소들을 청소년 보호업소로 지정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청소년들이 가출청소년통합지원센터나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하는 업무를 맡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미국에서 ‘안전보호소 프로젝트’란 이름으로 시행되었는데, 시내의 교회, 편의점, 피자 가게 등에 300여개의 안전보호소를 마련하여, 위험에 처한 청소년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전경숙, 1999). 위기에 처한 청소년이 이곳에 도움을 요청하면 15분 이내에 교육받은 자원 봉사 상담자가 청소년을 만날 수 있고, 원하는 경우에는 쉼터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안전보호소 프로젝트가 가출청소년 조기발견에 활용될 수 있다. 국내에서 ‘안전보호소 프로젝트’는 가출청소년들이 자주 찾는 업소들, 예컨대 피시방, 찜질방, 비디오방, 편의점, 오락실, 노래방 등의 업소와 경찰이 연계하여 가출청소년을 조기 발견하고 가출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시행될 수 있다.¹⁹⁾ 실제로 이와 유사한 방식이 남대문경찰서에서도 활용된 바 있으며, 몇몇 청소년 쉼터에서도 ‘업소 홍보활동’ 등의 이름으로 실시되고 있다(서울 YMCA 청소년쉼터, 2002). 그러나 아직은 이러한 프로그램이 주목할 만한 성과는 거두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유흥업소 업주들의 적

19) 가출청소년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먼저 찾는 것은 아르바이트 현장이다.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2002)의 조사에 의하면, 가출청소년의 50% 이상이 가출 후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었는데, 이들이 일하는 아르바이트 현장은 주유소, 신문보급소, 커피숍,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술집이나 단란주점 등이다. 이러한 아르바이트 현장은 가출청소년에게 접근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거점으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극적인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청소년 유흥업소와 경찰의 관계가 상호협력적 관계라기보다는 단속주체와 단속대상의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계에서 청소년 유흥업소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내자면 청소년 유흥업소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영업활동에 지장을 받지 않으면서 적절한 보상을 기대할 수 있는 형태의 협력관계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청소년 유흥업소가 가출청소년을 신고하는 장소로서 기능하기보다는 ‘드롭인 센터’의 취지와 같이 가출청소년의 필요를 파악하고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센터의 협력기관으로서 기능할 필요가 있다.

2. 가출청소년에 대한 인식 전환의 필요

경찰의 유해환경 정화활동 및 각종 단속활동은 유해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가출청소년에 접근을 용이하게 한다. 경찰은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가출청소년을 조기 발견할 수 있다. 가출청소년에 대한 근접성은 가출청소년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의 근접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서 가출청소년의 경찰에 대한 이미지는 중요하다. 김경준 외(2006)의 연구에서는 가출청소년이 가출 상태에서 경찰을 어떻게 경험하였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이 조사에 의하면, 조사대상 가출청소년 가운데 자신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경찰이 자신을 보호해 준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36.7%였다. 반면에 자신의 집이 어디인지 말하라고 경찰로부터 위협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28.0%였고, 죄를 자백하라고 경찰로부터 위협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24.1%였으며, 경찰로부터 억울하게 범죄인 취급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26.7%였다. 또 경찰이 자신을 무시했다고 응답한 경우가 34.6%였으며, 경찰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귀가시키거나 보낸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가 29.4%였다. 가출청소년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자신을 보호해 주는 경찰을 경험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경찰로부터 무시당하고, 범죄인 취급을 당하며 강제로 귀가조치를 당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가출청소년을 대하는 경찰의 태도에 일정한 변화를 요구한다. 가출청소년에 대한 조기발견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가출청소년이 경찰을 통해서 보호를 받는 것이다. 즉, 가출청소년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입장을 이해해주고 보호해 주는 수호자와 같은 경찰의 이미지 형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3. 가출청소년의 범죄 피해로부터의 보호 활동

가출청소년의 비행을 예방하는 대책은 무엇보다도 가출청소년들을 부정적 사회경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부정적 사회경험이란 청소년이 기본적인 생존과 관련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 거리에서 범죄 피해에 노출되는 것, 노동현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 등이다. 가출 청소년들에게 부정적 사회경험을 차단한다는 것은 바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다. 가출청소년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준다는 것은 가출청소년들이 기본적인 생존과 관련한 도움을 받게 하는 것이며, 거리에서 범죄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가출청소년은 범죄 피해자로서 인식되기보다는 범죄 ‘가해자’로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일단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가출청소년은 범죄 가해자이기도 하지만, 더욱 중요하게는 범죄의 피해자이다. 가출청소년을 범죄 피해로부터 보호해 주는 데 있어서 경찰의 역할이 중요하다.

제7장 요약 및 결론

이 연구는 가출 청소년이 비행과 범죄 피해에 노출되어 있는 실태를 밝히는 한편, 가출청소년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비행과 범죄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책들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서 이 연구에서는 (1) 청소년의 가출 경험은 비행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2) 청소년의 가출경험은 유해환경 접촉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3) 청소년의 가출 경험은 범죄피해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4) 가출 청소년들이 비행과 범죄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책이 모색될 수 있는가? (5) 특별히 경찰의 입장에서 필요한 대책과 제도 개선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질문에 주목하여 논의를 진행시켰다.

경찰청 가출청소년 통계자료에 기초해 볼 때, 1985년부터 1997년까지는 가출청소년의 규모가 큰 폭의 증가를 보였던 시기로 볼 수 있는 반면, 1997년 이후 2005년 사이에는 크게 높아진 가출청소년의 규모가 크게 떨어지지도, 높아지지도 않으면서 일정한 간격으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전국 중고교생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지난 2002년, 2005년, 2006년 세 시기를 비교해 볼 때, 조사대상자의 실제 가출 비율은 8.5%, 9.9%, 10.9%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따라서 전국적 규모의 표본 설문조사 결과에 기초해서 본다면, 지난 2002년 이후 가출 청소년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경찰청에서 집계한 가출청소년 통계에 기초하여 볼 때,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성별 가출청소년 발생 추세는 일관되게 여자 가출청소년의 숫자는 남자 가출청소년의 숫자를 상회하고 있다. 2001년과 2006년 여

자 가출청소년의 구성비는 63%에 이른다. 가출청소년 중에서 여자의 비율이 더욱 높다는 것은 가출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표집조사의 성별 분포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여러 조사에서의 표집결과로 볼 때나 경찰청에서 집계한 가출청소년 통계로 볼 때 남자보다 여자청소년들이 더욱 많이 가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가출발생건수에서 연령층별 비율을 살펴보면, 1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갈수록 낮아지고, 15세 미만이 차지하는 비율은 갈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별히 12세부터 14세까지의 연령층에서 가출발생의 증가가 뚜렷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가출 발생의 저연령화가 하나의 추세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청소년들의 가출 경향을 보면, 가출 후 비자발적으로 귀가한 경우와 귀가를 포기한 경우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가출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경향이 나타난다. 청소년 가출에서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 충동적·일시적 가출이 만성적 가출로 고착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의 가출은 흡연 및 음주와 같은 지위비행을 수반한다. 최근 조사결과를 종합하면, 일반 청소년의 흡연율은 15% 정도인데 비해서, 가출청소년의 흡연율은 50%를 넘어선다. 또한 일반 청소년의 음주율은 50%에 미치지 못하는데 비해서, 가출청소년의 음주율은 65%~80% 정도로 높게 나타난다.

가출청소년들은 일반학생들과 비교해서 유해환경 접촉경험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일반 학생과 비교하여 가출청소년의 이용경험이 높은 업소는 만화방, 화상채팅노래방, 카페, 호프집과 소주집, 나이트클럽 등이다. 가출청소년은 일반청소년과 비교해서 성인매체 이용경험이 더욱 높다. 가출청소년은 일반학생과 비교해서 19세미만 구독 불가 만화, 소설, 잡지책 등 성인간행물과 성인용 비디오나 영화 등의 접촉경험이 20% 가량 높다. 음란사이트 접촉경험도 8% 가량 높게 나타난다. 그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가출청소년의 흡입제 이용경험은 일반 학생에 비해서 높게 나타난다.

가출청소년의 가출 전후 비행 증가 여부를 살펴보면, 폭행, 돈이나 물건 훔침, 음란매체 시청경험, 자살생각, 자살시도 등은 가출 후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가출 이후 이성과 혼숙을 하거나 성관계를 갖는 경험, 남의 돈을 뺏는 행위나 유흥업소에 출입하는 행위, 유흥업소 취업, 환각제 약물복용, 돈을 받고 이성과 성관계를 맺는 행위 등은 가출 이후 더욱 증가하였다. 즉, 청소년의 가출은 성적인 문란함과 유흥업소 출입과 취업, 환각제 복용, 성매매 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출과 비행의 관련성에 관한 여러 조사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거의 모든 비행 유형에서 가출이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출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서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가출청소년을 범죄와 관련하여 이해할 때, 피해자라기보다는 가해자라는 인식이 지배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 인식과는 달리 가출청소년들은 범죄의 가해자라기보다는 범죄의 피해자로서 존재한다. 먼저 가출청소년들은 가정폭력의 피해자이다. 가출청소년들은 가정에서 신체적·언어적 폭력, 신체적·정서적 학대, 방임과 소외, 성추행의 경험이 있는 가정폭력의 피해자이다. 가출청소년은 학교폭력의 피해자이기도 하다. 전체적으로 가출청소년의 30~40%가 학교에서 폭력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출청소년들은 대개가 불안정한 장소에서 잠자리를 해결하는 가운데, 광범위하게 범죄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며, 열악한 아르바이트 환경에 놓여 있다. 가출 청소년들은 매우 낮은 임금을 받는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여 있으면서 더러는 업주로부터 보수를 받지 못하거나, 폭행과 구타, 성희롱을 당하는 등 여러 가지 형태의 범죄피해를 당하고 있었다.

가출은 청소년의 범죄 피해와 관련성이 있다. 가출청소년들은 학교에서의 왕따 피해와 금품절도 피해 등에 있어서는 가출하지 않은 청소년들의 피해 경험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나, 길거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금품강취 피해경험, 구타 협박 피해 경험은 가출청소년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가출청소년의 비행 문제는 개인적 차원의 문제를 넘어선 가정해체와 사회해체의 문제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가출청소년이 비행과 범죄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고 그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요구된다.

가출청소년 보호를 위한 청소년 쉼터의 제도개선 대책과 관련하여,

1. 일시쉼터의 확충이 필요하다. 가출청소년들 가운데 청소년보호시설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는 일부이다. 대다수의 가출청소년은 여전히 길거리를 방황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길거리를 방황하는 가출청소년들을 위한 일시쉼터의 확충이 필요하다. 국내에 있는 일시쉼터는 전국적으로 고작 7개가 운영되고 있을 뿐이다. 일시쉼터는 가출청소년 밀집지역에서 간단한 의약품, 세탁시설, 샤워시설, 간단한 음식 등을 갖추고 아무런 조건없이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청소년 쉼터의 양적 확대와 함께 기능적 특성화가 필요하다. 청소년보호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인 지원으로 단기 청소년 쉼터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쉼터의 수는 양적으로 크게 부족하다. 청소년 쉼터의 양적 확대에는 일시, 단기, 중장기 쉼터 등 기간별로 균형적인 확대가 필요하다. 최근 청소년 쉼터의 확대는 단기 쉼터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 한편, 청소년 쉼터의 확대는 단순한 양적 확대만이 아니라 기능적 특성화가 되어야 한다. 가출청소년들은 서로 다른

가출동기와 유형을 나타내며, 가출 후의 상태도 다양하다. 이러한 가출 청소년의 다양한 유형과 형편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요구된다.

가출청소년 관련 법 제도 개선 차원에서,

1. 가출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가출청소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가출청소년들이 유흥업소 등에서 불법 고용되어 있는 것은 자발적 선택의 결과라기보다는 마땅히 일할 자리가 없는 데서 비롯된 결과이기 쉽다. 이러한 점에서 가출청소년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노동현장에서의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청소년 고용지원 및 단속과 관련한 사항을 처리할 청소년 취업상담센터를 설치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가출청소년의 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가출 신고 및 접수 업무의 통합과 가출청소년 관련 제반 정보와 서비스의 통합이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가출 청소년 통합지원체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통합 지원체계가 구축됨으로써 가출청소년의 조기발견을 돕고, 체계적인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다.

가출청소년 보호를 위한 경찰차원의 대책과 관련하여,

1. 가출청소년 ‘안전보호지역’ 설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출한 청소년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비디오방, 노래방, 피시방, 오락실 등의 유흥업소에서 보내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업소들을 가출청소년 조기발견과

보호시설 연계의 매개 공간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 방법은 이러한 업소들을 청소년 보호업소로 지정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청소년들이 가출청소년통합지원센터나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하는 업무를 맡게 하는 것이다. 국내에서 ‘안전보호소 프로젝트’는 가출청소년들이 자주 찾는 업소들, 예컨대 피시방, 찜질방, 비디오방, 편의점, 오락실, 노래방 등의 업소와 경찰이 연계하여 가출청소년을 조기 발견하고 가출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시행될 수 있다.

2. 가출청소년에 대한 인식 전환의 필요가 있다. 경찰의 유해환경 정화활동 및 각종 단속활동은 유해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가출청소년에 접근을 용이하게 한다. 경찰은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가출청소년을 조기 발견할 수 있다. 가출청소년에 대한 근접성은 가출청소년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의 근접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서 가출청소년의 경찰에 대한 이미지는 중요하다. 가출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찰 이미지 조사결과는 가출청소년을 대하는 경찰의 태도에 일정한 변화를 요구한다. 가출청소년에 대한 조기발견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가출청소년이 경찰을 통해서 보호를 받는 것이다. 즉, 가출청소년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입장을 이해해주고 보호해 주는 수호자와 같은 경찰의 이미지 형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3. 가출청소년을 범죄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경찰의 활동이 요구된다. 가출청소년의 비행 예방하는 대책은 무엇보다도 가출청소년들을 부정적 사회경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가출 청소년들에게 부정적 사회경험을 차단한다는 것은 바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다. 가출청소년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준다는 것은 가출청소년들이 기본적인 생존과 관련한 도움을 받게 하는 것이며, 거리에서 범죄 피해에 노

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을 포함한다. 가출청소년을 범죄 피해로부터 보호해 주는 데 있어서 경찰의 역할이 중요하다.

<참고문헌>

- 국가청소년위원회(2005). 『2005년도 청소년 유해환경점검종합실태조사』.
- 국가청소년위원회(2006). 『2006년도 청소년 유해환경점검종합실태조사』.
- 국가청소년위원회(2007). 『2007년도 청소년쉼터 운영지침』.
- 권병덕(2002). “참여연대 설문조사와 사례로 본 청소년아르바이트 실태”. 『청소년 노동의 실태와 문제 토론회』. 참여연대사회인권팀.
- 김성경(1997). 『가출소녀를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김준호·박정선(1993). 『청소년 가출과 비행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지혜(2003). “가출청소년의 비행경험에 관한 해석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54권.
- 김지혜(2005a). 『가출청소년의 비행화 과정 연구』,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
- 김지혜(2005b). “가출청소년의 노동시장 참여와 비행”, 『한국청소년연구』, 제16권 제2호.
- 김향초(1998). 『가출청소년의 이해』. 학지사.
- 김향초(2004). “가출청소년 보호대책의 필요성”, 청소년보호위원회, 『2004 가출청소년 보호대책 토론회 자료집』, 2004.
- 김향초(2007). “가출청소년에 대한 이해”. 『청소년쉼터 전문상담사 워크샵』.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 김현수(2003). “가출청소년 개입에서의 새로운 서비스 패러다임 개발을 위하여”. 『서울시립 신림청소년쉼터 5주년 기념 workshop 자료집』. 서울시립 신림청소년쉼터.
- 박금혜(2004). “가출청소년 조기발견방안”, 청소년보호위원회, 『2004 가출청소년

- 년 보호대책 토론회 자료집, 2004.
- 서울 YMCA(1991). 『청소년연구조사 활동보고서』. 서울 YMCA 청소년 상담실.
- 서울YMCA 청소년쉼터(1997). 『청소년의 가출과 가정과의 관계에 대한 조사연구』.
- 서울YMCA 청소년쉼터(2003). 『서울 YMCA 청소년 거리 이동 상담』.
- 원혜옥(2001). “가출로 인한 청소년범죄의 유형 및 대처방안”. 『형사정책』, 제 13권 2호.
- 윤현영(2004). “가출청소년 보호시설의 발전방안”, 청소년보호위원회, 『2004 가출청소년 보호대책 토론회 자료집』, 2004.
- 윤현영·강진구(2005). 『가출청소년 쉼터 실태조사』.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 이성식(1995). “역할담당 감정으로서의 수치심과 청소년 비행: 상징적 상호작용 모델의 검증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29집(가을호).
- 이용교·홍봉선·윤현영(2005). 『청소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기준 마련에 관한 연구』. 청소년위원회.
- 이춘화·윤옥경(2003). 『여자 청소년 문제행동 예방과 대책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 전경숙(1999). 『가출청소년 보호시스템구축방안』. 한국청소년개발원.
- 전경숙(2006). “청소년가출”. 한국청소년개발원 편. 『청소년문제론』. 교육과학사.
- 정기선·민수홍·이희길(2001). 『가족과 청소년비행』. 자녀안심운동서울협의회.
- 참여연대(2002). 『청소년노동의 실태와 문제 토론회』. 참여연대사회인권팀.
- 청소년보호위원회(2004). 『청소년자살의 원인과 실태』.
-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백서』(1991-2006)
- 최윤진·구창모·정문성(1990). 『청소년 문제행동 진단을 위한 조사 연구(2)』. 한국청소년연구원.
- 한국청소년개발원 편(2006). 『청소년문제론』.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2002). 『전국 가출청소년 실태조사 및 상담사례 연구』.
-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2006). 『가출청소년 및 청소년쉼터 실태조사』.

홍봉선 · 남미애(2000). 『청소년복지론』. 양서원.

황순길 · 이은경 · 권해수 · 박관성(2001). “청소년 가출과 성매매 실태분석”. 『청소년 위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한국청소년상담원.

Brennan, T., F. Blanchard, D. Huizinga & D. Elliott(1975). *The Incidence and the Nature of Runaway Behavior*. Behavioral Research and Evaluation Corporation.

English, C. J. (1973). Leaving Home: A Typology of Runaways. *Society*, 10(5).

Garbarino, J., Wilson, J. & Garbarino, A. C.(1986). The Adolescent Runaway. In Garbarino, J., Shellenbach, C. J. & Sebes, J. M. (eds.), *Troubled Youth, Troubled Families: Understanding Families At Risk for Adolescent Maltreatment*. New York: Aldine Publishing Company.

Heimer, K.(1989). *Sex, Interaction, and Delinquency*. Ph.D. dissertatatio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Hirschi, Travis(1969). *Causes of Delinquency*.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Homer, L. E.(1973). Community-Based Resource for Runaway Girl. *Juvenile Justice*, 23.

Kipke, M. D., Simon, T. R., Montgomery, S. B., Unger, J. B., & Iversen, E. F. (1997) Homeless youth and their exposure to and involvement in violence while living on the street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20(5).

Kurtz, P.S., Jarvis, S. V., & Kurtz, G. L.(1991). Problems of homeless youth: Empirical findings and human services issues. *Social Work*, 36(4).

- Matsueda, R. L.(1992). Reflected appraisals, parental labeling, and delinquency: Specifying a symbolic interactionist theor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7(6).
- Miller, D., F. Hoffman, and R. Duggan(1980). *Runaways Illegal Aliens in Their Own Land*. N.Y.: Praeger Publishers.
- Roberts, A. R.(1987). *Runaways and Non-runaways: An Exploratory Study of Adolescent and Parental Coping*. IL: The Dorsey Press(나동석·이용교 역(1991). 『가출청소년연구: 청소년과 부모의 대처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 Springer, D.(2001). Runaway Adolescents: Today's Huckleberry Finn Crisis. *Brief Treatment and crisis Intervention*, 1.
- Stryker, S. (2002). *Symbolic Interactionism: A Social Structural Version*. NJ: The Blackburn Press.
- Sutherland, E. H. (1947). *Principles of Criminology*(4th ed.)Chicago: J. B. Lippincott Company.
- Tyler, K. A., Hoyt, D. R., & L. B. Whitbeck(2000). The effects of early sexual abuse on later sexual victimization among female homeless and runaway adolescent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5(3).

책임연구보고서 2007-06

가출청소년의 비행 예방과 보호 대책 연구

2007년 12월 발행

발행처 : 치안정책연구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동1길 29

이 책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자에 게재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치안정책연구소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Police Science Institute